

영화소풍을 위한 안내서

2015.6.04-6.08



무주산골  
영화제

제3회  
Muju  
Film  
Festival  
2015

[www.mjff.or.kr](http://www.mjff.or.kr)





CAMPING RESORT  
www.milmo.co.kr

바깥은 숲속이라



\*글램핑 내부 전경



한쪽의치마, 한쪽의그림, 그리고한쪽의추억

무주 적상산

빨강치마로 오세요

예약문의 (주)밀모 전라북도 무주군 적상면 사산리 산235 TEL: 063-322-7000 / FAX: 063-322-7800

(C) MARKETIST  
ALL RIGHTS RESERVED.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업체



뇌가 살아야 내가 삽니다.



천마의 名家~ 천마니  
천마진액/분말/환/고/기타 건강즙 제조 및 판매  
전국 무료배송

※ 쇼핑물에 접속하시면 더 많은 제품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천마니 검색



천마 담 80ml x 30포

저온에서 농축하여 성분의 소실없이  
생천마를 있는 그대로 담야 효능이  
매우 뛰어납니다.



천마분말 스틱 5g x 100개

짜서 말리지 않고 생천마 그대로 말려  
천마고유 성분을 빠짐없이 담았습니다.



천마환 스틱 5g x 100개

천마고유의 맛과 향 때문에  
천마를 드시기 힘든신분께 권합니다.

● 천마니 쇼핑몰 www.chunmani.com

● 무료상담주문전화 080-099-0999



하이트진로

SINCE 1933

# 맥주가 뭐라고

우리가 모였으니까

# hite

PALE LAGER



hite '뭐라고' 유적비디오

참고: 저산 알콜은 건강에 유해하며, 운전이나 작업중 사고발생률을 높입니다.

## 전주한옥마을 떡갈비/전/문/점

# 한옥떡갈비

육즙이 살아있는 떡갈비의 참맛-



 |유 한옥푸드  
Hanok Food co.,ltd

가맹점 문의 1588-8314





Aquaworld

대명리조트 변산 아쿠아월드

## 아쿠아월드에 머무르는 동안 당신의 휴식은 특별해집니다.

온 몸이 짜릿해지는 시간, 대명리조트 변산 아쿠아월드가 당신을 기다립니다.

실내 아쿠아존, 실외 파도풀존, 야외노천탕, 사우나, 테라피 등의 다양한 아쿠아월드 시설은 심신의 피로를 풀어주고, 물놀이의 재미를 더해줍니다.

DAEMYUNG  
RESORT  
BYEONSAN

대명리조트 변산 |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변산해변로 51 | 객실 예약 문의: 063-580-8725 / 아쿠아 문의: 063-580-8775

자연의 신선함을



## 건강의 시작! 푸르밀로 부터

푸르밀은 자연의  
푸르름, 순수함, 신선함을 뜻하며  
신선하고 건강에 좋은 먹거리를  
소비자 여러분께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이념을 담았습니다.

*Green*  
농업  
푸르밀 전속모델 하지원



문의처: 080-700-2001 / www.purmil.co.kr





"좋은 물은 물 맛도 다릅니다."

먹는 샘물 석정수는 임반 대수층에서 뽑아 올린 원수(原水)에 세심한 정성을 더하여 제품 하나하나에 정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전북 완주군 소양면 복은길 46-39

TEL : 063) 263- 4222(代) FAX : 053) 263-5666

www.glami.com

# 제43회 발명의 날 금탑산업훈장 수훈



세계 11개국 국제발명 특허품  
숙취해소에 정말 좋은

## 여명808<sup>®</sup>



숙취해소 808  
여명808~ ♪  
음주전후 숙취해소  
마시자 808  
해외특허 808 ♪  
정말좋아요~  
여명808!

### 벌써 갠겨?

가까운 지사, 약국, 편의점, 대형할인마트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세계 발명왕  
박성원

-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명예 경영학박사
- 순천향대학교 명예 보건학박사
- 용인대학교 명예 경영학박사
- 동국대학교 명예 약학박사
- 사단법인 대한유도회 회장



발명특허기업  
주식회사 그래미

제품구매 문의 및 소비자 상담전화 080-4073-808 또는

1636

에 전화걸고 안내에 따라

숙취해소 또는 여명8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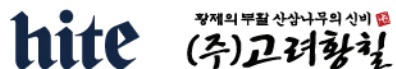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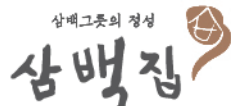
이라고 말씀하세요.



Presenting Spons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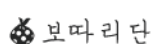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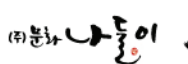
Main Sponsor



Festival Sponsor



Partner



제3회  
무주산골영화제  
Muju Film Festival 2015



- 주최 무주산골영화제 조직위원회
- 주관 무주산골영화제 집행위원회
- 후원 전라북도  
무주군  
전주 MBC



# contents

## MJFF 2015

- 포스터 & 로고 ... 11
- 페스티벌 프렌드 ... 12
- 행사공간지도 ... 13
- 상영시간표 ... 15
- 셔틀버스시간표 ... 18
- 교통정보 ... 21
- 제3회 무주산골영화제를 시작하며 ... 22
- 슬로건 ... 24
- 시상내역 & 심사위원 ... 25

## MJFF 2015 프로그램

- 개·폐막작 ... 28
- 창·窓 WINDOW of CINEMA ... 32
- 판·場 PICNIC CINEMA ... 42
- 락·樂 SHOUTING CINEMA ... 54
- 숲·林 CAMPING CINEMA ... 57
- 길·路 TOWN CINEMA ... 60

## MJFF 2015 이벤트

- 행사공간 소개 ... 64
- 이벤트 일정 ... 65
- 공연 소개 ... 66
- 관객 참여 이벤트 ... 68



# 포스터 & 로고



Symbol mark



Logotype

## Poster

제작·디자인 이지연

제3회 무주산골영화제 포스터는 일상에 지친 관객들의 휴식과 치유를 위해 푸른 숲 속 극장으로 다시 태어난 6월의 푸른 무주로 전국 방방곡곡에서 모여드는 '영화 소풍'을 담아내고 있다. 지도 이미지 위에 그대로 나타난 싱그러운 초록빛 무주를 중심으로 자연과 함께 어우러져 관객들이 영화를 보고, 자연 속에서 공연과 캠핑을 즐기는 영화제의 모습을 아가자기한 일러스트 캐릭터들로 구성하여 유쾌하게 표현했다.

## F·I Festival Identity

디자인 page9

'산'은 뾰족한 느낌을 주지만 '산골'이 주는 어감은 모나지 않고 둥글둥글하다. 이 '산골'이라는 이름에 착안하여 둥글고 따뜻한 느낌을 표현했다. 또한 나무 하나 하나가 모여 숲을 이루듯 둥글고 부드러운 원기둥 모를 하나하나를 조각 맞추기처럼 형상화했다. 주 색깔은 숲을 보여주는 초록색으로 하되, 반딧불이의 빛을 상징하는 노란색과 꽃들을 연상할 수 있는 진분홍색으로 포인트를 주었다.



## 페스티벌 프렌드



### 전혜빈

올해로 3회를 맞이하는 무주산골영화제의 '페스티벌 프렌드'(Festival Friend)는 배우 전혜빈이다. 무주산골영화제의 이미지와 잘 어울리는 전혜빈은 밝고 건강한 에너지가 넘치는 배우로 <심장이 뛰다>(SBS)와 <정글의 법칙>(SBS) 등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건강하면서도 긍정적인 모습으로 많은 대중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다. 또한 드라마 <조선 총잡이>(KBS 2TV)와 <직장의 신>(KBS 2TV) 등 여러 TV 드라마를 통해 안정된 연기력을 인정받았으며, 최근에는 스크린 복귀작인 <우리 연애의 이력>에서 여배우 '우연이' 역을 맡아 영화인들의 기대를 받고 있다.

## 행사공간지도

### 설렘존 EXCITING ZONE

행사 공간 무주읍 등나무운동장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한풍루로 326-17)  
공간 구성 개막식장, 야외상영, 메인공연, 대중가요 콘서트





**울림존 SYMPATHY ZONE**

**행사 공간** 무주예체문화관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한풍루로 326-17)  
무주반딧불시장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장터로2)

**공간 구성** 무주산골영화관 반디관('창'섹션), 무주산골영화관 태권관('판'섹션)  
예체문화관 1F 대공연장('판'섹션), 야외무대, 포토존(국내외 상영작), 전시(한국영화 100선 포스터), 이벤트&체험&기념품 부스



**어울림존 HARMONY ZONE**

**행사 공간** 덕유산 국립공원 덕유대 야영장 内(내) 대집회장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삼공리 519-7, 063-322-3174)

**공간 구성** 야외상영 및 음악공연('숲'섹션 영화 상영)





6.4 목 개막일 / 6.8 월 폐막일

공간	섹션	10:00	11:00	12:00	13:00	14:00	15:00	16:00	17:00	18:00	19:00	20:00	21:00	22:00	23:00	0:00	1:00
무주읍 등나무운동장	개막										[개막식 + 어느 여름 밤의 꿈, 찰리 채플린]ⓐ p.28						
무주산골영화관 반디관	폐막		[폐막식+폐막식] p.31														

6.5 금

공간	섹션	10:00	11:00	12:00	13:00	14:00	15:00	16:00	17:00	18:00	19:00	20:00	21:00	22:00	23:00	0:00	1:00
무주산골영화관 반디관	창		내일을 위한 시간 ⓐ 95분 p.44			거인ⓐ GV 108분 p.33		꿈보다 해몽ⓐ GV 98분 p.34			위로공간ⓐ GV 95분 p.38						
예제문화관 대공연장	판		우드집ⓐ 116분 p.49		개를 출치는 완벽한 방법ⓐ BA GV 109분 p.43			화장ⓐ 94분 p.53		프린스 아발란체ⓐ 90분 p.53			제이. 에드거ⓐ 137분 p.51				
무주산골영화관 태권관	판	이카이의브 GV 유령들ⓐ 33분 p.48	저 하늘에도 슬픔이ⓐ 102분 p.50		부에노스아이레스 에서 사랑에 빠질 확률ⓐ 94분 p.46			트라이브ⓐ 132분 p.52			언더 더 스킨ⓐ T 108분 p.48						
무주읍 등나무운동장	락										세인트 빈센트ⓐ 102분 p.55		위플래쉬ⓐ 106분 p.55				
	이벤트									서울시무용단 (홍으로의 여행)							
덕유산 국립공원 대집회장	숲										비포 선라이즈ⓐ T 105분 p.58	비포 선셋ⓐ 80분 p.58	비포 미드나잇ⓐ 109분 p.58				
	이벤트								오조요 나들맨 결								
반딧불시장 원형광장	길										리를 포레스트: 여름과 가을ⓐ 111분 p.61						
예제문화관 앞	이벤트			홍보 대사 핸드 프린팅		동네 친구 들		박 다 빈									

- BA **배리어프리 영화** 시청각장애인들이 불편없이 영화를 감상할 수 있도록 만든 음성해설과 한국어자막이 있는 특별 버전의 영화.
- GV **관객과의 대화** 영화 상영 후, 감독이나 배우와 함께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 T **산골토크** 영화 상영 후 영화 전문가와 영화에 대한 깊이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관람  
정보

**무료상영 · 선착순 입장**

- 모든 영화는 무료로 상영됩니다.
- 선착순으로 입장하셔서 원하시는 자리에 앉아주세요.

**실내 상영관 유의사항**

- 상영작 관람등급에 따라 입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휴대폰은 꺼주세요. 사진이나 영상촬영은 금지됩니다.

**GV 관객과의 대화 관련 유의사항**

- '관객과의 대화' 일정은 게스트의 방문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변동사항은 홈페이지나 SNS의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6.6 토

- GV **관객과의 대화**
- BA **배리어프리 영화**
- T **산골토크**
- A **전체관람가**
- 12 **12세이상관람가**
- 15 **15세이상관람가**
- 18 **청소년관람불가**

공간	섹션	10:00	11:00	12:00	13:00	14:00	15:00	16:00	17:00	18:00	19:00	20:00	21:00	22:00	23:00	0:00	1:00
무주산골영화관 반디관	창		지미스 홀ⓐ 109분 p.51			성실한 나라의 엘리스ⓐ GV 87분 p.37			환여름의 판타지아ⓐ GV 94분 p.41			목숨ⓐ GV 95분 p.35					
예제문화관 대공연장	판		이기적인 거인ⓐ 91분 p.49		고녀석 만나겠 다2: 함께라서 행복해ⓐ GV 80분 p.44			셀마ⓐ T 128분 p.47			심야식당ⓐ T 120분 p.48			클라우드 오브 실스마리아ⓐ 124분 p.51			
무주산골영화관 태권관	판		제네시스 : 세상의 소금ⓐ 110분 p.50			로크ⓐ 85분 p.45			통네프의 연인들ⓐ 125분 p.53			포스마주어 : 화이트 베케이션ⓐ T 120분 p.52					
무주읍 등나무운동장	락												서커스 with 이영훈 밴드ⓐ 72분 p.56	말할 수 없는 비밀ⓐ 101분 p.56			
	이벤트												나눔 콘서트 (송포유)				
덕유산 국립공원 대집회장	숲												은하철도의 꿈ⓐ 102분 p.59	만추ⓐ GV 115분 p.59	파이란ⓐ 116분 p.59		
	이벤트												선우 정아				
반딧불시장 원형광장	길																5일의 마중ⓐ 109분 p.61

6.7 일

공간	섹션	10:00	11:00	12:00	13:00	14:00	15:00	16:00	17:00	18:00	19:00	20:00	21:00	22:00	23:00	0:00	1:00
무주산골영화관 반디관	창		블랙스톤ⓐ GV 92분 p.36			철원기행ⓐ GV 102분 p.40			의자가 되는 법 ⓐ GV 80분 p.39				더 딥 블루 씨ⓐ 98분 p.45				
예제문화관 대공연장	판		네브라스카ⓐ 115분 p.44			페딩턴ⓐ 95분 p.52			브와카우ⓐ 110분 p.46			비비안 마이클 찾아서ⓐ 84분 p.47		생 로랑ⓐ 150분 p.47			
무주산골영화관 태권관	판		백설공주 살인사건ⓐ 126분 p.46			이다ⓐ 82분 p.50			런치박스ⓐ 104분 p.45				오마르ⓐ 96분 p.49				
무주읍 등나무운동장	이벤트																어울림 콘서트 (남진 리사이틀)
예제문화관 앞	이벤트					셋 두 리			유니 온 립								

상영관 주소

관람  
정보

- 무주읍 등나무운동장**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한풍루로 326-17
- 무주예제문화관**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한풍루로 326-17
- 덕유산 국립공원 덕유산 야영장**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삼공리 519-7  
063-322-3174
- 무주반딧불시장**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장터로2 (읍내리 1152)



# 셔틀버스 시간표

## 개막일

6/4 목

&

## 어울림 콘서트

6/7 일

※각 장소의 시간은 버스 출발시간입니다.  
 ※예체문화관을 방문하시는 관객은 무주공용버스터미널 승·하차장을 이용바랍니다.  
 무주공용버스터미널과 예체문화관 사이 이동시간은 도보로 5분 정도 소요됩니다.  
 ※상영관(예체문화관) 방향을 함께 명시하기 위해 예체문화관/무주공용버스터미널로 표기하였습니다.

**상행노선** 무주군 5개면 → 예체문화관/무주공용버스터미널

출발지						도착지
창 1호		판 2호			락 3호	예체문화관/ 터미널
안성 주민센터	빨강치마 리조트	적상 주민센터	무풍 주민센터	설천 주민센터	부남 주민센터	
17:00	17:20	17:40	17:00	17:20	17:00	
18:20		18:40			19:00	18:40

출발지					도착지	
술 4호			길 5호		예체문화관/ 터미널	
H힐스 리조트	덕유산 레저 바이크텔	하조사거리	괴목리	유숙마을		H힐스 리조트
18:00	18:20	18:35	18:40	18:50		17:00
17:15		17:25		17:40	18:00	

**하행노선** 예체문화관/무주공용버스터미널 → 무주군 5개 면 및 숙소

출발지	출발 시간	주요경유지 및 도착지		출발 시간	주요경유지 및 도착지		출발 시간	도착지	
		창 1호			판 2호			락 3호	
		적상 주민센터	안성 주민센터		설천 주민센터	무풍 주민센터		부남 주민센터	
예체문화관/ 터미널	22:10	22:25		22:10	22:45		22:10	23:00	
		22:45			23:05			23:00	
		23:00			23:05			23:00	

출발지	출발 시간	주요경유지 및 도착지			출발 시간	주요경유지 및 도착지		
		술 4호				길 5호		
		빨강치마 리조트	덕유산 레저 바이크텔	H힐스 리조트		빨강치마 리조트	덕유산 레저 바이크텔	H힐스 리조트
예체문화관/ 터미널	21:00	21:20	21:40	22:00	22:00 (괴목 경유)	22:20	22:40	23:00
	22:30 (설천면 경유)	22:50	23:10	23:30	23:00	23:20	23:40	24:00
	23:30	23:50	24:10	24:30	24:00	24:20	24:40	25:00

※ 각 장소의 시간은 차량 출발시간입니다.

## 영화제 기간

6/5 금 ~ 6/7 일

※6월 8일(월)은 셔틀버스를 운행하지 않습니다.  
 ※배차간격 및 소요시간은 교통 상황, 관객 대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이점 양해 바랍니다.  
 ※무주 읍·면간 이동시 평균 30분~1시간 정도 소요 되오니, 영화상영 시간표와 공연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행노선** 예체문화관/무주공용버스터미널 → 무주 덕유산 레저 바이크텔  
 → 덕유대 대집회장 → H힐스리조트 (총 1시간 15분 소요)

술 4호, 길 5호 [상행노선 : 예체문화관 / 무주공용버스터미널 → H힐스리조트]					도착지
	예체문화관/터미널	빨강치마 리조트	덕유산 레저 바이크텔	덕유대 대집회장	
① 술 4호	11:00	11:20	11:40	11:50	H힐스리조트
② 길 5호	12:00	12:20	12:40	12:50	
③ 술 4호	14:00	14:20	14:40	14:50	
④ 길 5호	15:00	15:20	15:40	15:50	
⑤ 술 4호	16:00	16:20	16:40	16:50	
⑥ 길 5호	17:00	17:20	17:40	17:50	
⑦ 술 4호	18:00	18:20	18:40	18:50	
⑧ 길 5호	20:00	20:20	20:40	20:50	
⑨ 술 4호	21:00	21:20	21:40	21:50	
⑩ 길 5호	22:00	22:20	22:40	22:50	
⑪ 술 4호	22:30	22:50	23:10	23:20	
⑫ 길 5호	23:40	24:00	24:20	24:30	





영화제 기간

6/5 금 ~ 6/7 일

- ※6월 8일(월)은 셔틀버스를 운행하지 않습니다.
- ※배차간격 및 소요시간은 교통 상황, 관객 대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이점 양해 바랍니다.
- ※무주 읍·면간 이동시 평균 30분~1시간 정도 소요 되오니, 영화상영 시간표와 공연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행노선

H힐스리조트 → 덕유대 대집회장 → 무주 덕유산 레저 바이크벨  
→ 예체문화관/무주공용버스터미널 (총 1시간 15분 소요)

술 4호, 길 5호 [하행노선 : H힐스리조트 → 예체문화관 / 무주공용버스터미널]					
	H힐스리조트	덕유대 대집회장	덕유산 레저 바이크벨	빨간치마 리조트	도착지
① 술 4호	10:00	10:15	10:25	10:45	예체문화관/ 터미널
② 길 5호	11:00	11:15	11:25	11:45	
③ 술 4호	12:00	12:15	12:25	12:45	
④ 길 5호	13:00	13:15	13:25	13:45	
⑤ 술 4호	15:00	15:15	15:25	15:45	
⑥ 길 5호	16:00	16:15	16:25	16:45	
⑦ 술 4호	17:00	17:15	17:25	17:45	
⑧ 길 5호	18:00	18:15	18:25	18:45	
⑨ 술 4호	20:00	20:15	20:25	20:45	
⑩ 길 5호	21:00	21:15	21:25	21:45	



교통정보

승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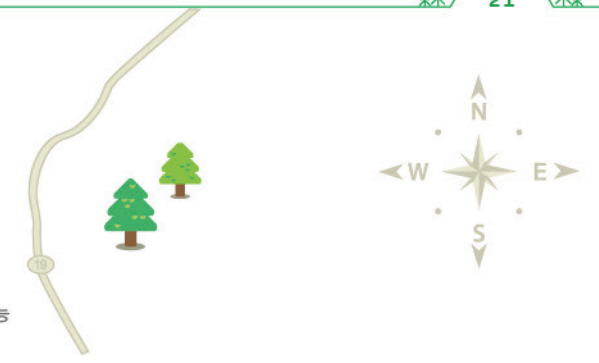
- 서울 서울 경부고속도로 → 무주IC → 무주 2시간 소요
- 대전 대전 통영간고속도로 → 무주IC → 무주 30분소요
- 대구 대구 경부고속도로 → 황간, 영동 → 무주 1시간 30분 소요
- 전주 익산 포항고속도로 → 무주IC → 무주 1시간 30분소요, 30번 국도 이용가능
- 부산 부산 남해고속도로 → 진주IC → 무주IC → 무주 3시간 소요
- 광주 광주 88고속도로 → 남장수IC → 무주 2시간 소요

고속·시외버스터미널

- 서울 서울 남부터미널 → 무주공용버스터미널 2시간 30분 소요
  - 대전 대전 북합터미널 → 무주공용버스터미널 40분 소요
  - 전주 전주 시외버스터미널 → 무주공용버스터미널 2시간 소요
  - 광주 광주 버스터미널 → 무주공용버스터미널 3시간 소요
- ※ 무주공용버스터미널 063) 322-2245

기차

- 서울 서울역 → 영동역 → 무주 2시간 40분 소요
  - 대구 대구역 → 영동역 → 무주 2시간 소요
  - 부산 부산역 → 영동역 → 무주 2시간 40분 소요
- ※ 무주는 기차역이 없는 관개로 영동역에서 무주간 이동은 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무주공용버스터미널 시간표 (서울, 대전, 전주, 광주, 금산, 영동)

서울남부 → 무주	무주 → 서울남부	전주 → 무주	무주 → 전주	무주 → 대전	대전 → 무주
2시간 30분 소요 (13,400원)		(경유) 1시간 40분 소요 (9,700원)		50분 소요 (4,400원)	
07:40	09:45	06:45	06:40	07:00	07:20
09:20	11:05	07:20	08:10	07:40	08:00
10:40	14:40	08:45	09:15(안천경유)	08:30	09:00
13:40	15:35	09:40	10:30	09:00	09:40
14:35	17:45	10:20	11:20(안천경유)	09:50	10:30
광주 → 무주	무주 → 광주	11:10	12:20(안천경유)	10:30	11:10
3시간 30분 소요 (16,500원)		12:35	13:30	11:30	12:00
07:05	06:50	13:40	15:10	12:35	12:50
09:15	08:50	14:45	16:00(안천경유)	13:20	13:20
11:10	10:00(남원까지)	15:50	16:55	14:00	14:00
13:20	12:05	16:45	17:45(안천경유)	14:35	14:50
15:00	13:50	18:20	18:15	15:10	15:20
17:00	15:45	19:35	19:00(안천경유)	16:10	16:10
	17:40	20:35	19:55	16:40	16:50
영동 → 무주(구천동)	무주 → 영동	금산 → 무주	무주 → 금산	17:30	17:30
30분 소요 (3,300원)		30분 소요 (3,200원)		18:25	18:10
10:00	09:00	09:00	07:00	19:30	19:00
15:40	14:00	11:00	10:00	20:00	20:00
		14:00	12:10	20:40	21:00
		15:00	13:10		
		16:40	15:20		
		18:40	17:25		

※ 대전→무주간 버스는 1일 19회 운행 됩니다. 따라서 배차가 넉넉한 대전을 경유하셔도 됩니다.

※ 대전 터미널은 고속·시외버스가 한곳에 위치한 대전 북합터미널입니다.

※ 2015년 5월 기준, 상기 버스 시간표와 요금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3회 무주산골영화제를 시작하며

초록빛으로 가득한 6월,  
반딧불이의 고장 무주로 향하는  
'설렘' 가득한 세 번째 영화소풍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14년, 총 개봉영화 편수 1,095편(한국영화 217편, 외국영화 878편), 천만 관객 동원영화 4편, 영화 관람 관객 수 2억 1,506만 명, 한국 영화산업 매출 규모 2조 276억 원. 이처럼 한국영화산업은 매년 역대 최고 기록을 갱신 중입니다. 그러나 겉보기에 화려한 숫자의 이면에는 한국 영화산업의 어두운 현실이 존재합니다. 2014년 다양성 영화 개봉편수는 367편으로 전체 개봉 편수의 33.5%에 달하지만 다양성 영화 관객 수는 전체 영화 관객 수의 6.6%에 불과합니다.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367편의 다양성 영화는 전국 20여개의 예술영화관과 상업영화들이 차지하고 남은 멀티플렉스의 상영관에서 상영되며 그나마 예술영화관의 절반은 서울, 경기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성 영화로 대변되는 독립/예술영화가 대한민국의 극장에서 안정적으로 상영되는 일은, 그리고 서울, 경기지역 외의 관객이 다양성 영화를 보는 일은 시간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무주산골영화제는 날이 갈수록 양극화 일로에 있는 한국 영화산업 속에서 작은 영화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세 번째 영화 소풍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다양한 영화, 상대적으로 관객과 만날 기회를 갖지 못한 영화를 예년보다 조금 더 다양한 방식으로 관객 여러분에게 선보이고자 합니다. 비록 작은 힘이나마 하루에 3편 꼴로 개봉하는 영화의 흥수 속에서 살고 있는 관객에게 다양성 영화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데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 영화야! 소풍갈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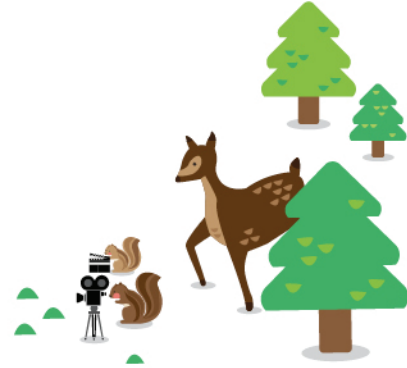
무주산골영화제가 꾸는 꿈은 크지 않습니다. 수없이 많은 개봉작과 많은 영화제 상영작 중에서 엄선한 '좋은' 영화와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울림'의 영화를 관객과 다시 만나게 하는 영화제, '함께 영화보기'와 '영화제'가 가진 의미를 다시 생각하는 작은 영화 축제, 갈수록 비정상을 정상처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이상한 세상 속에서 지친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쉬어갈 수 있는 소풍 같은 '어울림'의 영화제. 이것이 무주산골영화제가 꿈꾸는 영화제입니다. 그리고 이 소박한 꿈이 무주산골영화제를 사랑하는 관객과 함께 꾸는 꿈이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초록빛으로 가득한 6월, 반딧불이의 고장 무주로 향하는 '설렘' 가득한 세 번째 영화소풍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슬로건

# 설렘 울림 어울림



### ‘설렘’ 가득한 영화소풍길. 영화야! 소풍갈래?

‘소풍’은 잠시 일상을 뒤로 하고 삶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 설렘 가득한 작은 여행길입니다. 익숙한 일상의 관성에서 벗어난 이 소박한 여행을 통해 우리는 일상을 지속할 수 있는 삶의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무주산골영화제는 천혜의 자연환경이 어우러진 열린 공간을 스크린 삼아 무주의 주민들과 무주를 찾아온 모든 이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작지만 의미있는 소풍같은 영화제를 만들어 가려 합니다.

### 새로운 시선의 영화와 조우하는 ‘울림’의 창. 무주산골영화제!

영화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담은 ‘창’이며, 세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입니다. 사각의 프레임 속에 펼쳐지는 다채로운 세상은 우리 시선과 맞닿으며 마음 속에 충동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마음을 울리기도 합니다. 그 충동과 울림은 깊이에 따라 ‘나’와 ‘너’의 세계에 머무르기도 하고, ‘우리’로 이어지는 변화를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무주산골영화제는 무주를 찾는 모든 관객을 향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펼쳐 보이는 영화라는 ‘창’을 활짝 열어 젖어보려고 합니다. 미지의 세상을 향해 열린 우리의 ‘창’은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의 영화로, 즐거움과 외침의 영화로, 관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울림’의 영화로 여러분과 마주할 것입니다.

### 자연 속 스크린, 청정 자연과 어우러지는 ‘어울림’의 공간. 무주!

반딧불이가 서식하는 무주의 청정 자연 속에서 펼쳐지는 무주산골영화제는 이제껏 만나지 못했던 특별한 영화 감상의 체험을 선사합니다. 반짝이는 별과 부드러운 바람, 그리고 푸른 산과 숲으로 가득한 아름다운 무주는 무주산골영화제와 함께 남녀노소 모든 관객이 영화와 함께 어우러지는 열린 야외극장으로, 휴식과 치유를 위한 숲 속 극장으로, 관객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공감의 극장으로,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마을의 작은 극장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 시상내역 & 심사위원

### 뉴비전상 NEW VISION AWARD (상금 1,000만원)

한국영화경쟁부문인 ‘창’ 섹션에서 상영되는 9편의 영화 중에서 한국영화의 미학적 지평을 넓히고, 새로운 시선과 도전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영화적 비전을 보여준 최우수 영화에 상금 1,000만원을 수여한다.

### 심사위원



허문영 (영화평론가)

『씨네21』기자 및 편집장, 부산국제영화제 프로그래머, 시네마테크 부산 원장을 역임했고 현재 부산 영화의 전당 프로그램 디렉터로 활동하고 있다. 영화평론가로서도 활동해왔으며 『보이지 않는 영화』(2014), 『세속적 영화, 세속적 비평』(2010) 등 여러 권의 저서와 역서를 출간했다.



오정완 (영화사 봄 대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영화제작사 중 하나인 영화사 봄의 설립자이자 대표. 오정완 대표는 프로듀서 중심의 제작 시스템과 창의적인 마케팅을 기반으로 기존의 한국영화와 차별화된 한국영화사에 기록될 중요한 작품들을 지속적으로 제작해왔다. 그가 제작한 대표 작품으로는 <반칙왕>(2000), <스캔들>(2003), <달콤한 인생>(2005), <너는 내 운명>(2005), <밤과 낮>(2007), <멋진 하루>(2008), <카운트다운>(2011) 등이 있다.



김태웅 (영화감독)

1999년 민규동 감독과 공동 연출한 영화 <여고괴담 두 번째 이야기>로 데뷔했으며, 2006년에 연출한 두 번째 장편영화 <가족의 탄생>을 통해 본격적으로 국내에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2010년에는 한국영화사의 걸작 중 하나인 이만희 감독의 <만추>를 연출하며 한국 뿐 아니라 아시아의 주목받는 감독으로 인정받았다. 최근에는 아시아 옴니버스 프로젝트 <뷰티풀 2012>(2012)와 3D 옴니버스 프로젝트 <신촌츰비만화>(2013)에 참여했다.



## 시상내역 & 심사위원

### 전북영화비평포럼상 (상금 100만원)

한국장편영화경쟁부문인 '창'섹션에 상영되는 9편의 영화 중에서 전북영화비평포럼 회원 3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선정한 최우수 영화에 상금 100만원을 수여한다.

### 심사위원

#### 정낙성

제2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일탈> 상영, 현재 익산 원광여자고등학교에서 미술교사로 재직 중이며 전북독립영화협회 이사, 전북영화비평포럼 회원, 전북영상미디어교육연구회 회원 등 독립영화와 청소년영화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

#### 조시돈

현재 전주 효문여자중학교 사회과 교사로 재직 중이며, 전북영화비평포럼 회원, 전북독립영화협회 상임이사로 재직 중이다. 전북지역에서 영화와 관련하여 꾸준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저서 『전북영화사』(공저), 『전주에서 영화를 읽다』(공저) 등이 있다.

#### 고영주

익산 이리여자고등학교 영어교사, 현재 전북교육정책연구 파견교사로 근무하고 있다. 전북영화비평포럼, 익산영화인문모임, 전북영상교육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하며 영화와 인문학을 공부하고 있고 열린전북, 참소리에 영화칼럼을 기고하고 있다.

### 전북영화비평포럼

전북지역의 교사, 교수 등 시민 중심의 영화 마니아들이 의미 있는 영화감상과 글쓰기를 통해 영화담론과 영상문화의 저변확대를 꾀하기 위해 2007년 2월 전북영화비평포럼을 결성했다. 비평 저변확대를 위해 평론스쿨과 고전영화상영전을 개최하며 시민들과의 소통을 꾀하고, 전북지역의 영화 관련단체와 연대하며 전북 영상문화의 토대를 만드는 디딤돌 역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0년 12월, 영화비평집 『전주에서 영화를 읽다』를 발간한데 이어 2013년 12월, 영화비평집 『전주에서 영화를 읽다 II』를 발간했다.

### 무주관객상

한국장편영화경쟁부문인 '창'섹션에 상영되는 9편의 영화 중에서 무주에 거주하는 영화애호가 3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최우수 영화를 선정하여 부상을 수여한다. 올해는 무주의 영화동호회 무비인무주 소속 회원 3인(황조연, 임선희, 홍한일)이 심사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 프로그램

**WINDOW OF CINEMA**  
새로운 시선의 영화를 만나다!  
한국장편영화 경쟁부문



상영영화 : 동시대 / 최신 한국 독립 영화  
상영장소 : 무주산골영화관 반디관

**PICNIC CINEMA**  
영화보러 소풍가자!



상영영화 : 국내의 영화  
상영장소 : 무주산골영화관 태권관  
무주예체문화관 대공연장

**SHOUTING CINEMA**  
초여름의 뜨거운 밤을 즐겨라!



상영영화 : 국내의 영화, 음악/가족/고전영화  
상영장소 : 무주읍 등나무운동장(무주예체문화관 옆)

**CAMPING CINEMA**  
영화보고 캠핑도 즐기는 숲 속 영화관!



상영영화 : 국내의 영화, 애니메이션  
상영장소 : 덕유산 국립공원 덕유대 야영장 내(내) 대집회장

**TOWN CINEMA**  
우리 동네에 극장이 생겼어요!



상영영화 : 국내의 영화  
상영장소 : 무주만덕불시장 내(내) 원형광장



# 개막작

# opening film

## 어느 여름밤의 꿈, 찰리 채플린

총연출 : 김중관 | 음악감독 : 모그 | 70분

06.04(목) 19:00 | 무주읍 등나무운동장

### 개막작 선정의 변

무주산골영화제는 한국영상자료원과 함께 선보였던 1회 개막작 <청춘의 십자로>와 2회 개막작이었던 <이국정원>을 통해 과거의 영화를 공연과 결합한 현대적인 방식으로 재해석함으로써 무주를 찾은 많은 관객으로부터 호평을 받은 바 있다.

2015년은 미국 무성영화의 거장 찰리 채플린이 탄생시킨 영화역사상 가장 위대한 캐릭터인 '리틀 트럼프' 탄생 101주년이 되는 해이다. 최근 이를 기념해 그의 영화들이 연달아 극장에서 재개봉되었다. 채플린은 '리틀 트럼프'를 통해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세상을 보고 그들을 따뜻하게 보듬어 안음으로써 당대 관객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리고 자본주의와 산업화로 비롯된 인간성 상실을 날카롭게 풍자하는 채플린의 영화는 시대를 앞선 놀라운 통찰력을 보여주었다. 100여 년 전 만들어진 그의 영화가 여전히 지금의 관객을 웃고 울릴 수 있고, 영화를 통해 전하려고 했던 그의 메시지가 현대에도 유효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무주산골영화제는 과거의 영화를 현대적인 방식으로 되살려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냈던 1회와 2회 개막작의 취지를 살리는 한 편, '영화를 인간 정신의 위대한 표현으로 격상시킨' 위대한 감독이었던 찰리 채플린과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의 영화를 기억하기 위해 찰리 채플린을 주제로 한 새로운 기획을 개막작으로 선보이기로 결정했다. 우리는 영화를 통해 인물의 감성을 가장 섬세하게 표현해온 김중관 감독과, 음악을 통해 영화 속 인물이 가지는 미묘한 슬픔을 가장 잘 표현해온 모그 음악감독이 만들어낼 101년 전 탄생한 '리틀 트럼프'의 환생을 무주에서 목격하게 될 것이다.

6월 4일, 초록빛으로 가득할 산골 무주의 초 여름밤에 펼쳐질 찰리 채플린의 유쾌한 소동극에 여러분을 초대한다.



### 개막작 구성

무대의 스크린에 비춘 채플린의 거대한 그림자로부터 실제 채플린이 무대 위에 등장한다. 채플린은 누군가 피워놓은 모닥불 아래서 불을 쬐고 흥진 계란을 삶아먹는다. 그리고 어스름한 들뜬 무대 위에서 멀리 다가오는 기차의 기적소리를 듣는다. 기관차의 증기가 무대를 뒤덮고, 채플린은 기차를 훔쳐 타기 위에 사람들 사이 역 안으로 들어간다. 기차가 출발하는 경적소리를 내고, 하얀 스크린에 영화가 시작한다.

밤하늘 아래 브라스밴드의 즐거운 연주와 함께 채플린의 <유한계급>이 상영된다. 영화가 끝나면 채플린은 다시 스크린 밖으로 끌려나온다. 무대 위의 실제 채플린은 <키드>, <서커스>에서 보여주었던 슬랩스틱 코미디를 공연하고 다시 스크린 안으로 걸어간다. 채플린이 등장했던 수많은 영화들의 하이라이트 영상이 나오고 채플린은 스크린 안과 밖을 오고 가며, 영화의 환상을 만들어낸다. 초 여름밤의 무주에 방랑자 채플린이 끼어들어 즐거운 소동을 만든다. 그리고 멀리 다른 경적 소리를 듣고 잠시 머문 무대 위에서 뒤뚱거리며 사라진다.

CHARLES CHAPLIN



## 총연출 & 음악감독 소개



### 총연출 : 김종관 (영화감독, 작가)

〈풀라로이드 작동법〉(주연 정유미, 2004), 〈낙원〉(주연 양익준, 2005), 〈아카이브의 유령들〉(주연 문소리, 한예리, 윤지혜, 차진업 등, 2014) 등 다수의 단편 영화를 만들었으며 국내외 많은 영화제에 상영 및 수상했다. 2008년 〈연인들〉이라는 타이틀로 개인의 단편 컬렉션 최초로 정식 개봉했다. 2010년 장편 〈조금만 더 가까이〉(주연 정유미, 윤계상, 요조 등)을 개봉했다. 2012년 산문집 〈사라지고 있습니까〉(출판사 우듬지), 2014년 콩트집 〈그러나 불은 끄지 말 것〉(출판사 달)을 출간했다.



### 음악감독 : 모구

현재 한국영화계에서 가장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음악감독이자 뮤지션이다. 2003년까지 뉴욕에서 재즈를 비롯한 세션 베이시스트로 활동해왔고 귀국하여 2004년 1집 앨범 〈Desire〉로 발매하며 국내에서 활동을 시작했다. 2010년 김지운 감독의 〈악마를 보았다〉의 음악을 맡으며 음악감독으로도 활동해왔다. 〈악마를 보았다〉, 〈도가니〉, 〈광해, 왕이 된 남자〉 등의 작품을 통해 드라마틱하면서도 인물의 슬픔이 묘하게 배어있는 다양한 음악을 담아냈다. 참여작으로는 〈마담뱃덕〉(2014), 〈여린〉(2014), 〈수상한 그녀〉(2013), 〈화이:괴물을 삼킨 아이〉(2013), 〈라스트 스탠드〉(2013), 〈광해, 왕이 된 남자〉(2012), 〈에덴〉(2011), 〈도가니〉(2011), 〈악마를 보았다〉(2010) 등이 있다.

## 연출의 변

스크린 위에 올려진 영화들은 최초 무성영화의 시기를 지나 유성영화의 시기, 컬러영화의 시기, 아이맥스 스크린의 시기, 3D 영화의 시기를 거치며 관객에게 놀라움과 실감을 안겨주는 것을 노력했다. 그렇다고 지금의 관객이 예전의 관객보다 더 실감하고 스크린 안의 세계를 즐기는 것은 아니다. 무성영화는 관객의 것이었다. 필름에 대사와 음악이 저장되지 않았으나 단순한 형식의 영화는 아니었다. 관객은 스크린 안의 세계에 지금보다 더 몰입했다. 연주자들이 있었고 어느 곳에서는 변사들이 있었다. 지금은 극장에서 영화와 관객이 바로 만나지만 무성영화의 시기는 영화와 무대와 관객이 함께 하는 시대였다. 무대 옆에 선 작은 오르간일 때도 있었고 오케스트라였을 수도 있고 변사였을 수도 있는, 다양한 퍼포먼스들이 스크린과 관객 사이에 있었다. 단순한 영화 보기가 아닌 공연 문화가 빈번히 이루어졌다. 그 생경함과 신기함을 재연하는 공연이 갖든 상영을 만들어내고 싶다. 스크린과 관객 사이에 있었던 그 무엇의 역할을 대신해 보고자 한다. (김종관)

## about Charles Chaplin



### 찰리 채플린에 대하여

찰리 채플린(1889년 4월 16일 ~ 1977년 12월 25일)은 영국 출신의 희극 배우, 영화 감독이자 각본가, 음악가로 무성영화 시기에 크게 활약한 인물이다. 독특한 얼굴 분장과 의상, 슬랩스틱 연기는 남녀노소 누구나 알고 있는 채플린의 트레이드 마크이며 그는 영화역사상 가장 중요한 캐릭터로 손꼽히고 있는 떠돌이 방랑자 '리틀 트럼프'를 통해 단순한 희극인을 넘어 시대의 표상이자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다. 세계 만국어로 통용되는 명불허전의 슬랩스틱 코미디를 선보이며 20세기 최고의 슈퍼스타로 군림했던 찰리 채플린, 희극에 비극의 깊이를 부여할 줄 알았던 인간적인 영화인이자, 물질 만능주의와 기계 문명에 의해 파괴된 인간성 회복을 주장하고 끝까지 전쟁과 독재에 항거했던 채플린은 88세의 일기로 사망하기까지 세간의 수많은 찬사와 비난 속에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

## opening film



## 유한계급 The Idle Class

미국 | 1921년 | 32분 | B&W | 전체관람가  
감독: 찰리 채플린  
출연: 찰리 채플린, 에드나 펄비안스, 맥 스와인

찰리 채플린이 1인 2역을 맡은 채플린의 단편 무성영화, 골프장에 몰래 들어온 부랑자(찰리)는 술 취한 남편(찰리)과 말다툼을 하고 있는 한 부유한 여인을 만나게 된다. 그녀가 이 부랑자를 그녀의 남편과 혼동하면서 사건이 벌어진다.

### 프로그램 섹션

## 폐막작 & 시상식 closing film & award ceremony

06.08(월) 11:00 | 무주산골영화관 반디관

한국장편영화경쟁부문인 '창'섹션의 뉴비전상 수상작을 폐막적으로 상영한다.





# Window of cinema

한국장편영화경쟁부문인 '창' 색션은 2014년 8월 1일 이후 제작 완료되었거나 국내외 영화제에서 첫 공개, 또는 극장 개봉한 한국영화 중에서 우리가 사는 다채로운 세상을 개성적이고 차별화된 시선으로 포착하여 새로운 영화적 가능성을 보여준 동시대 한국영화들 중 9편을 선정했다. 상영작 구성을 살펴보면 극영화 6편, 다큐멘터리 3편, 장편데뷔작 3편이다.

올해 상영될 장편 극영화 6편은 다양한 소재를 다루면서도 감독만의 시선과 영화적 야심이 돋보이는 장편독립영화들이다.

먼저 2014년과 2015년에 나온 영화들 중 한국 사회의 문제점을 다루면서도 자신만의 시선과 연출력이 돋보이는 신인감독의 장편 데뷔작 3편을 상영한다. 강원도 철원을 배경으로 막 정년퇴임을 한 아버지의 갑작스런 이혼 선언을 통해 가족 간의 소통 부재와 긴장감을 차분하게 담아낸 김대환 감독의 영민한 데뷔작 <철원기행>, 감독의 자전적 이야기를 바탕으로 지긋지긋한 가족을 떠나 스스로 고아가 되려고 하는 열일곱 소년의 피곤한 삶을 힘있게 담아낸 종교 신인 김태용 감독의 야심찬 데뷔작 <거인>, 그리고 부조리한 세상에서 점점 괴물이 되어가는 한 여성의 이야기를 독특한 리듬과 장르적으로 풀어낸 2015년 상반기 신작 중 가장 흥미롭고 신선한 데뷔작이라 할 수 있는 안국진 감독의 블랙코미디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가 그 주인공들이다.



그리고 전작을 통해 구축한 자신만의 스타일과 영화 세계를 더욱 확고히 하며 앞으로 전진하고 있는 40대 전후 감독들의 흥미로운 장편 영화 3편을 상영한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흥미롭고 재능있는 스토리텔러 중 한 명인 이광국 감독의 두 번째 장편영화 <꿈보다 해몽>을 상영하는데, 꿈과 현실을 오가는 미로 같은 이야기 구조 속에서 위트 있고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풀어가는 감독의 연출력이 돋보인다. 이와 함께 한국독립영화 감독 중 가장 사실적이면서 현실감 넘치는 영화를 만들어온 장건재 감독의 연출력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그의 세 번째 장편영화 <한여름의 판타지아>와 군인생활을 하고 있는 혼혈 남성을 통해 한국사회의 문제를 정제된 형식과 실험적인 이미지로 담아낸 노경태 감독의 영화적 야심이 돋보이는 네 번째 장편 영화 <블랙스톤>이 상영된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한국독립영화에서 다큐멘터리의 약진이 눈에 띈다. 올해 무주산골영화제에서는 대상을 다루는 방식과 형식적인 측면에서 작가적 시선과 새로운 시도가 돋보이는 3편의 독립 다큐멘터리를 상영한다. 먼저 박찬경, 정윤석, 박경근 감독에 이은 또 한 명의 주목할만한 미술계 출신의 다큐멘터리 감독인 임흥순 감독이 한국과 아시아의 여성노동자의 삶을 담아낸 두 번째 다큐멘터리 <위로 공단>을 상영한다. 이와 함께 일상생활의 필수품인 의자를 통해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게 하는 감독의 새로운 시선과 흥미로운 시도가 돋보이는 손경화 감독의 세 번째 다큐멘터리 <의자가 되는 법>과 <사이에서>와 <길위에서> 같은 전작을 통해 연출력을 인정받은 이창재 감독이 죽음을 목전에 두고 호스피스에 생활하는 환자들을 통해 죽음의 의미를 파고든 그의 세 번째 다큐멘터리 <목숨>이 상영된다.



감독 김태용 KIM Tae-yong  
한국 | 2014 | 108min  
극영화 | Color | 12세이상관람가

06.05(금) 13:30 무주산골영화관 반디관

관객과의 대화★

## 거인

Set Me Free

### 줄거리

구억질나는 집을 나와 보호시설인 그룹홈에서 자란 열일곱 '영재', 시설을 나가야 할 나이가 되었지만, 무책임한 아버지 집으로는 결코 돌아가고 싶지 않아 초조하다. 선량을 베푸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든지 무릎 꿇어주며 신부가 될 모범생처럼 살갑게 굴지만, 남몰래 후원물품을 훔쳐 팔기도 하고, 거짓말로 친구를 배신하며 하루하루 버틴다. 눈칫밥 먹으며 살기 바쁜 어느 날, '영재'에게 아버지가 찾아온다. 자신에게 동생마저 떠맡기려는 아버지로 인해 '영재'는 참을 수 없는 절망과 분노로 폭발하게 된다.

### 감독 김태용

2010년 완성한 첫 단편영화 <얼어붙은 땅>이 제 63회 칸영화제 시네파운데이션 부문에 초청되며, 국내 최연소 칸영화제 입성 감독의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그 후 미장센단편영화제 비정성시 부문 최우수 작품상 수상작 <북두태만>, 류승완 감독이 제작을 맡은 <인생은 새옹지마>, 김조광수 감독과 함께한 <원나잇 온리>, 2013년 서울독립영화제 개막작 <서울연애>를 연출했으며 <신춘호비만화> 중 류승완 감독 연출작인 <유령>의 각본을 맡기도 했다. <거인>은 김태용 감독의 열 번째 영화이자 첫 장편영화로 2014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시민 평론가상과 올해의 배우상을 수상했다.



### 영화에 대하여

고등학교 영재는 무책임한 부모를 떠나 천주교의 지원을 받는 그룹홈에서 살아간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감추기 위해 가면 하나쯤은 쓰고 살지만 영재가 가면 쓰고 사는 이유는 살아남기 위해서다. 후원 물품을 몰래 훔쳐 팔아 용돈을 마련하곤 하면서도 그룹홈에서는 착하고 말 잘 듣는 아이처럼 행동하는 것은 그만의 생존법이다. 그런 그에게 위기가 찾아온다. 이제 열일곱 살이 되어 더 이상 그룹홈에서 살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고, 무책임한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는 건 죽기보다 싫다. 이런 상황에서 영재가 할 수 있는 일은 신부가 꿈인 척 하는 것 뿐이다. 그래서 영악하기 짝이 없어 보이는 영재의 눈은 불안으로 가득하고, 그의 고단한 삶은 불안의 연속이다. 김태용 감독의 자전적 이야기를 토대로 한 영화 <거인>은 영재를 둘러싼 부조리한 현실을 사실적으로 그려내는 한편, 부유하는 영재의 삶과 불안한 심리를 설득력있게 담아낸다. 동생마저 자신에게 떠맡기려는 무책임한 부모에게 "그럼 나는 돌아갈 데가 없잖아?"라고 외치는 영재의 절규가 관객의 심장을 파고드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불안의 과정을 포착하는 김태용 감독의 섬세한 연출력과 미묘한 감정을 표현하는 최우식의 뛰어난 연기가 돋보이는, 2014년 하반기 개봉작 중 단연 눈에 띄는 데뷔작 중 한 편이다.





감독\_이광국 LEE Kwang-kuk  
한국 | 2014 | 98min  
극영화 | Color | 15세이상관람가

06.05(금) 16:30 | 무주산골영화관 반디관

관객과의 대화★

## 꿈보다 해몽

### A Matter of Interpretation

#### 줄거리

인기없는 공연만 하고 있는 한 무명 여배우는 꿈자리가 사납다. 꿈을 좀 아는 형사는 자살 사건을 정리한 후 심란한 마음으로 찾은 공연에서 여배우를 만난다. 우연히 시작한 대화는 어느덧 어젯밤 꿈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된다.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들어 준다는 것. 때론 이것만으로도 지친 우리 삶에 위로가 된다.

#### 감독\_이광국

시간이 지나도 계속 남을 수 있는 영화. 여러 번 봐도 그때마다 새로움을 느낄 수 있는 영화를 만들고 싶다는 이광국 감독은 장편영화 <로맨스조>, 단편영화 <달로는 힘들어> 등을 연출했다. 자신의 영화에서 꿈과 현실, 환상과 일상을 실타래처럼 자연스럽게 풀어나가는 솜씨를 인정받은 이광국 감독의 두 번째 장편영화 <꿈보다 해몽>은 2014년 부산국제영화제 CGV 무비콜라주상, 2014년 서울독립영화제 최우수작품상을 수상했고, 2015년 로테르담국제영화제 경쟁부문에 진출했다.



#### 영화에 대하여

대한민국 영화계에서 가장 흥미로운 스토리텔러라고 할 수 있는 이광국 감독의 두 번째 장편영화다. 관객이 거의 없는 연극에 출연 중인 여배우 연신은 어느 날, 해몽에 소질이 있다고 말하는 형사를 만나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시작한 이야기는 등장인물들의 꿈과 현실 사이를 자유롭게 유영하며 진행된다. 앞의 이야기가 뒤의 꿈과 연결되고, 앞의 꿈이 뒤의 현실과 연결되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미로 같은 이야기는 직선적인 서사에 익숙한 관객에게 끊임없는 긴장을 요구하면서도 누군가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을 때 느낄 수 있는 원초적인 유희를 만들어낸다. 감독은 이렇게 꿈과 현실의 벽들을 자신만의 방법으로 차곡차곡 쌓아가고 결국 감독이 만든 '픽션의 집'이 완성되면, 우리는 꿈과 현실을 몇 번씩이나 거쳐 온 이 이야기가 결국 고단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꿈과 희망에 대한 것이었음을 알게 된다. 감독의 뛰어난 연출력과 빛나는 재능이 돋보이는 이 흥미로운 영화는 가볍게,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서사의 본질과 서사가 가진 원초적인 유희에 대해 사유하게 한다. 이것이 단 두 편의 영화로 한국영화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있는 이광국 감독의 다음 작품이 기대되는 이유이다.



감독\_이창재 LEE Chang-jae  
한국 | 2014 | 95min  
다큐멘터리 | Color | 12세이상관람가

06.06(토) 19:30 | 무주산골영화관 반디관

관객과의 대화★

## 목숨

### The Hospice

#### 줄거리

남은 시간 평균 21일. 삶의 끝에서 잠시 머물며 이별을 준비하는 곳 호스피스 병동.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마지막을 준비한다. <목숨>은 죽음을 목전에 둔 네 명의 주인공들이 그들 삶의 마지막 가장 소중한 시간을 내어준 선물 같은 영화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임종 앞에서야 진심으로 사랑하며 마치 처음인 듯 뜨겁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슬픈데 웃음도 나고 겁나는데 따뜻하기도 하고, 가족이 생각나고 오늘이 소중한 것이고 괜히 반성하게 되는 시간. 임종을 통해 보게 되는 살아있다는 것의 기적,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목숨'을 만난다.

#### 감독\_이창재

제일기획, 삼성영상사업단을 거쳐 시카고 아트 인스티튜트에서 영화 석사 과정을 마치고 2004년부터 중앙대 첨단영상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2003년 장편다큐<EDIT>으로 야마카타영화제, 라이프치히국제영화제 및 뉴욕현대미술관에 초청받았고, 전주국제영화제와 테살로니키영화제 등에 초청된 <사이에서>와 이후 완성된 <길위에서>는 2006년, 2013년 각각 당해 다큐멘터리 최고수행작으로 기록되었다.



#### 영화에 대하여

만신 이해경의 삶에 다른 <사이에서>와 비구니의 삶과 수행의 과정을 다룬 <길위에서>를 연출한 이창재 감독의 최신작 <목숨>은 호스피스 병동을 배경으로, 네 명의 환자와 가족, 그들을 돌보는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의 일상과 그들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다. 영화 속에는 네 명의 말기 암 환자가 등장한다. 두 아들의 엄마 김정자, 쪽방촌 외톨이 신창열, 수학 선생님 박진우 할아버지, 평범한 사십 대 가장 박수명, 죽음을 목전에 둔 이 네 명의 환자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자신에게 찾아온 피할 수 없는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 호스피스 운동의 선구자 엘리자베스 퀴블리 로스는 사람들은 부정→분노→타협→우울→수용의 다섯 단계의 과정을 거쳐 죽음에 이한다고 했다. 호스피스의 의료진은 환자들이 수용의 단계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지만 죽음을 맞이하는 환자들은 이 다섯 단계의 감정을 오가며 복잡한 마음을 숨기지 못한다. 이 영화 속에는 환자와 의료진 외에 오랫동안 기억될 인물이 한 명 나오는데, 바로 정민영 스테파노 신학생이다. 유쾌하고 사려 깊은 태도로 호스피스 환자들의 돕는 자원봉사자인 그의 시선과 고뇌는 영화 속 네 환자의 죽음을 함께 지켜봐야 하는 우리의 시선과 고뇌이기도 하다. 친구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목격한 후 이 영화를 시작한 이창재 감독은 죽음의 과정과 죽음의 순간을 촬영해야 하는 윤리적 문제를 가까이 감내하며 슬픔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 없이 영화 내내 담담하게 관조하는 태도를 견지한다. 불편하지만 아름다운 이 다큐멘터리는 이렇게 관객으로 하여금 현재 삶의 가치를 성찰케 하는데 성공하고 있다.





감독\_노경태 ROH Gyeong-tae  
한국,프랑스 | 2015 | 92min  
극영화 | Color | 청소년관람불가

06.07(일) 11:00 | 무주산골영화관 반디관

관객과의 대화★

## 블랙 스톤

Black Stone

### 줄거리

군대에서 성폭행을 당해 에이즈에 걸린 혼혈아 주인공이 충격과 분노로 피의자인 상관을 찾아가 상관을 죽이고 탈영을 한다. 부모님을 찾으러 집으로 가지만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본래의 고향으로 떠났다. 아버지를 찾아 열대우림으로 떠난 후, 자연으로부터 그의 정신적, 육체적 병이 마법처럼 치유되는 판타지 로드무비다.

### 감독\_노경태

콜롬비아대학에서 영화연출을 공부하고, 샌프란시스코 예술대학에서 영화를 전공했다. 워크샵 작품인 실험영화 <환생>(2004)과 <아버지와 아들>(2005)로 다수의 영화제에 초청받았다. 첫 장편 <마지막 밥상>은 제11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아시아영화진흥기구상을 수상했고, 로카르노국제영화제, 선댄스영화제, 로테르담국제영화제 등 여러 영화제에 초청되었다. 이후 연출한 <허수아비의 땅>은 2008 아시아영화페스티벌 지원받았고, 13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뉴커런츠상을 수상하였다. 영화 <블랙스톤>은 프랑스 네온프로덕션과의 국제공동제작과정을 통해 완성된 영화로 프랑스국립영상센터, 영화진흥위원회, 서울영상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고 2015년 로테르담국제영화제에서 첫상영되었다.



### 영화에 대하여

주인공 X는 한국사회에서 소속감을 가지고 살기 위해 혼혈인데도 불구하고 자원입대를 했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가 혼혈임을 늘 확인한다. 필리핀인인 아버지와 한국계 중국인인 어머니 역시 축산물가공업체에서 일하며 한국사회에서 살고 있지만 이방인인 이 부부의 삶은 비루하다. 그래서 X가 상관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후 HIV에 감염되고, 어머니가 회사에서 가져온 고기를 먹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한국사회에서 살아가는 이방인들의 비참한 현실을 상징한다. 분노에 휩싸인 X는 자신을 성폭행한 상관을 살해한 후 탈영하고 집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어머니가 죽은 후 아버지는 자신의 고향인 필리핀으로 떠나버렸고, 텅 빈 집에는 어머니의 유골만이 있을 뿐이다. 결국 X는 한국을 떠나 아버지가 살고 있는 필리핀의 한 해변 마을로 간다. 그러나 이 마을의 해변은 침몰한 한국 유조선의 기름으로 검게 오염되어 있다. 절망의 끝에서 선 X는 아버지를 만나고 열대우림에서 신비한 일을 겪으면서 다시 태어난다. 영화는 전체적으로 2부로 나누어져 있다. 1부가 한국사회에서 어렵게 살던 한 이방인 가족이 해체되는 과정을 정제된 형식으로 그리고 있다면, 태국의 거장 아파차퐁 위라세 타곤의 영향이 엿보이는 2부는 한국사회의 부조리함 때문에 망가져버린 X가 신비한 일을 겪으며 다시 환생하는 과정을 상징적인 이미지를 통해 담아내고 있다. 환경오염 삼부작 중 마지막 작품인 <블랙스톤>은 자신만의 영화 미학을 구축해 가고 있는 노경태 감독의 영화적 야심과 최근 한국영화에서 찾기 힘들었던 과감하고 실험적인 시도가 돋보인다. 이것이 몇 가지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을 지지하는 이유다.



감독\_안국진 AHN Gooe-jin  
한국 | 2014 | 87min  
극영화 | Color | 청소년관람불가

06.06(토) 13:30 | 무주산골영화관 반디관

관객과의 대화★

##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

Alice in Earnestland

### 줄거리

식물인간인 남편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생활의 최전선에서 홀로 고군분투 하는 수남. 노동의 강도에 비해 상황은 쉽게 나아지지 않고 남편이 일 어날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던 어느 날 모든 걸 해결해줄 재개발 발표가 난다. 하지만 수남과는 입장이 다른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게 되고 수남은 어쩔 수 없이 살인을 시작하게 된다.

### 감독\_안국진

서울 출생. 경희대학교 연극영화학부를 졸업했다. 단편영화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2008)는 부천판타스틱영화제의 비경쟁, 서울독립영화제의 경쟁 부문에서 상영되었으며 대한민국 대학영화제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어 한국영화아카데미에서 연출한 <더블클러치>(2010)는 미장센 단편영화제, 홍콩단편영화제에서 상영되었으며, 한중대학영화제에서 최우수작품상을, 전주국제영화제 한국단편경쟁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 영화에 대하여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는 성실함을 끊임없이 요구하면서도 성실함의 대가를 돌려주지 않는 부조리한 사회 구조 속에서 점점 괴물로 변해가는 한 여성을 흥미로운 방식으로 담아낸 안국진 감독의 데뷔작이다. 주인공 수남에게는 회사에서 안전사고로 한 쪽 손을 잃고 자살 시도를 한 후 식물인간이 되어버린 남편이 있다. 남편이 되살아날 가망은 없지만 남편에 대한 죄책감과 사랑 때문에 수남은 남편을 포기할 수가 없다. 그래도 남편을 병원에 두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녀는 끊임없이 일한다. 그러나 아무리 일해도 그녀의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없다. 그러던 어느 날 이런 상황을 해결해 줄 재개발 발표가 나고, 수남은 남편이 살아있을 때 구입한 집이 재개발 구역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된다. 그러나 다른 주민들의 반대로 재개발이 무산될 상황이 된다. 병원비가 절박한 그녀는 그녀를 방해하는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한다. 그러나 그녀가 정작 싸워야 하는 대상은 모호하기만 하다. 영화는 시종일관 유쾌하면서도 독특한 리듬으로 이야기를 진행시키는 한편 다양한 장르적 요소들을 적절히 활용하여 장르 영화가 주는 즐거움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독특한 캐릭터와 끊임없는 반전을 통해 관객의 시선을 붙잡는다. 주연배우 이정현의 뛰어난 연기가 돋보이는 이 영화는 그렇게, 부조리한 사회 구조의 문제에 메스를 들이대는 어른들을 위한 잔혹한 우화이자, 한국 사회의 문제를 장르적으로 풀어낸 독특한 블랙코미디가 된다. 이 영화가 상반기 공개되는 한국영화 중 단연 돋보이는 신인감독의 발견이라 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감독\_임흥순 IM Heung-soon  
한국 | 2015 | 95min  
다큐멘터리 | BW&Color | 12세이상관람가

06.05(금) 19:30 | 무주산골영화관 반디관

관객과의 대화★

## 위로공단

### Factory Complex

#### 줄거리

2014년 1월, 바다 건너 캄보디아에서 봉제노동자들이 일어난 그날, 21살의 여공의 머리에 총알이 날아들었다. 노동자도 사람이라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임금을 달라고 외친 결과였다. 저임금, 노동 착취, 유혈 진압 등 잊고 싶었던 말들이, 1970년대 대한민국 동대문 청계시장을 가득 채웠던 말들이, 2014년 동남아시아를 떠돈다. 과거 여성노동자들의 딸들은 콜센터 안 내원, 승무원이나 대형마트 점원과 같은 서비스직 감정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로 삶을 이어가고 있다. 서비스, 디지털, 첨단산업으로 노동의 외양과 형태는 언뜻 발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왜 그녀들의 삶은 여전히 어렵고 궁핍해져만 가는 걸까?

#### 감독\_임흥순

미술가이자 영화감독, 부산비엔날레(2004), 광주 비엔날레(2002, 2004, 2010), 샤르자비엔날레(2015, UAE) 등 국내외에서 작품이 소개되었다. 첫 번째 영화였던 <비넵>(2012)는 평단의 고른 지지를 받으며, 2013년 개봉했다. 두 번째 장편영화인 <위로공단>은 2012 시네마디지탈서울-버티컬라이프부문, 2013 부산국제영화제 AND펀드, 인천다큐멘터리포스트 베스트프러컷상, 등을 수상했고, 2014년 부산국제영화제와 서울독립영화제 경쟁부문에 선정되었으며, 한국영화 최초로 2015 베니스 비엔날레 본 전시에 초청되었다.



#### 영화에 대하여

<위로공단>은, 첫 장면 다큐멘터리 <비넵>을 통해 4.3사건과 강정마을로 이어지는 제주도의 비극적인 역사를 다루었던 임흥순 감독이 여성노동자들의 아픈 역사를 자신만의 미학적 스타일로 담아낸 두 번째 장편 다큐멘터리다. 영화가 시작되면 196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노동의 최전선에서 살아온 과거와 현재의 여성노동자들이 하나씩 호명된다. 그리고 카메라 앞에 선 그들은 자신들이 과거에 겪었고, 현재에도 여전히 진행 중인 고된 노동의 현실과 치열했던 투쟁의 역사, 그리고 그들의 고단한 삶을 생생하게 들려준다. 영화는 시간 순으로 배열된 여성노동자들과의 인터뷰를 중심으로 놓고, 이를 이미지를 통해 시각화 하는 한편,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이어져온 고단한 여성노동자들의 삶과 자본의 폭력에 희생당한 여성노동자들의 역사를 상징적인 방식으로 재현한다. 미술계의 중견 비주얼 아티스트이기도 한 감독은 생생한 인터뷰와 상징적 이미지를 자신만의 미학적 스타일로 배치, 조합함으로써 여성노동자의 아픈 역사 위에 여성노동자를 위한 '위로 공간'을 건설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아무리 노력해도 더 나은 삶을 살 수 없는 여성노동자들의 슬픈 삶을 보듬어 안는 한편, 아시아의 다른 나라에까지 손길을 뻗친 천박한 대한민국 자본주의의 어두운 이면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개개인의 삶을 통해 상징적인 방식으로 역사를 복원하는 데에 성공한 <위로공단>의 성취는 한국 다큐멘터리의 새로운 영토를 개척한 또 하나의 사례로 기억될 것이다.



감독\_손경화 SON Kyung-hwa  
한국 | 2014 | 80min  
다큐멘터리 | Color | 전체관람가

06.07(일) 16:30 | 무주산골영화관 반디관

관객과의 대화★

## 의자가 되는 법

### How to Become a Chair

#### 줄거리

의자가 만들어지고, 버려진다. 던져지고 부서진다. 그리고 다시 만들어진다. 긴 과정 속에서 의자는 내내 가만히 있다. 버려져도 가까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의자란 사물에 대한 궁극적 의자와 같은 삶을 바라는 감독의 태도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 감독\_손경화

2009년 다큐멘터리 <샘터분식> 조연출로 다큐멘터리 제작을 시작했으며, 2009년 다큐멘터리 공동연출을 맡은 <개척춘>은 광주인권영화제, 인디다큐페스티벌, 대만여성영화제, 인천여성영화제 등에서 상영되었다. 2010년에는 다큐멘터리 <당신과 나의 전쟁>에 조연출로 참여했으며, 2011년에는 다큐멘터리 <어머니>와 <두 개의 신>을 촬영했다. 2014년 제6회 DMZ국제다큐영화제 한국경쟁-최우수 한국 다큐멘터리상을 수상하였고, 제40회 서울독립영화제 새로운 시선상을 수상한 바 있다.



#### 영화에 대하여

파란색 플라스틱 의자가 천천히 추락한다. 의자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배우고 싶었다는 손경화 감독이 연출한 자신의 세 번째 다큐멘터리 <의자가 되는 법>은 이렇게 시작한다. 좌식 문화에 익숙한 우리에게도 의자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 중에 하나다. 우리는 어디서나 의자를 필요로 한다. 우리는 의자에서 일하고, 휴식하고, 공부하고, 이동하고, 식사하고, 이야기한다. 영화는 이처럼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의자와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 대화하기 시작한다. 누군가는 의자를 디자인하고, 만들고, 구입한다. 때론 예술작품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들의 이야기는 의자로 시작하지만 결국 우리 삶에 대한 이야기로 귀결된다. 그리고 각각의 이야기 사이사이에는 평소에는 좀처럼 눈에 띄지 않지만 늘 주변에 존재했던 버려진 의자의 이미지가 배치되고, 여기에 연출된 추락하는 의자의 이미지가 추가로 삽입된다. 우리의 삶은 이렇게 때론 버려지고, 때론 추락하여 박살이 나기도 한다. 그러나 추락하여 박살난 의자는 한 의자 전문가에 의해 수리되고, 영화의 마지막에 다시 그 모습을 드러낸다. 그 의자를 비추던 카메라는 뒤로 물러서면서 의자를 둘러싼 세상을 보여주고 결국 수리된 의자가 우리의 모습을 상기시킨다. 다소 느슨한 구성으로 인해 전달하려는 주제가 모호해 보이기도 하지만 <의자가 되는 법>은 의자를 통해 우리의 삶을 은유하면서 인류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자 현대사회의 필수품인 의자를 통해 우리의 삶을 성찰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선사한다.





## 철원기행

End of Winter

### 줄거리

평생 철원공고 교사로 일한 아버지가 정년퇴임을 한다는 소식에 어머니와 두 아들, 며느리가 철원을 찾는다. 퇴임식이 끝난 식사 자리에서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폭탄선언과 여전히 부모님께 손을 벌려야 해서 눈치를 보는 두 아들의 모습이 그려진다. 폭설로 버스 운행이 중단되고 가족은 아버지가 머무는 철원의 관사에서 불편한 동거를 하게 된다. 서로를 오해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되풀이 하며 함께 살아가는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작품이다.

### 감독\_김대환

홍익대학교 영상디자인학과에서 <소풍 안내서 비스>, <부자 면접> 두 편의 단편영화를 연출했고, 단국대학교 영화콘텐츠전문대학원에서 첫 장편영화 <철원기행>을 연출했다. <철원기행>은 2014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아시아의 최고 신인감독에게 수여되는 뉴커런츠상을 수상했고 올해 베를린영화제 포럼부문에서 상영된 바 있다.



감독\_김대환 KIM Dae-hwan  
한국 | 2014 | 102min  
극영화 | Color | 12세이상관람가

06.07(일) 13:30 | 무주산골영화관 반디관

관객과의 대화★

### 영화에 대하여

철원공고에서 오랫동안 교사 생활을 하던 아버지의 정년퇴임식, 오랜만에 흠어져 살던 큰 아들 부부와 작은 아들, 그리고 같은 교사인 어머니가 아버지의 정년퇴임을 축하하기 위해 철원에 모인다. 퇴임식이 끝난 후 가족과의 식사 자리에서 아버지는 이혼을 선언한다.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이혼 선언에 어머니는 분노하고 자식들은 당황한다. 이런 상황에서 갑작스런 폭설로 인해 버스 운행이 중단되고, 타지에서 온 가족들은 꿈쩍없이 아버지가 사는 관사에서 이틀 밤을 보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오랜 주말 부부 생활로 소원해진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의 돈에 관심이 있는 큰 아들 부부와 철없는 작은 아들은 오랜만에 함께 생활하면서 그동안 묻어두었던 여러 가지 감정을 드러내며 서로 부딪친다. 감독은 아버지의 이혼 선언의 이유나 가족 간의 극적인 감정의 폭발에는 별 관심이 없다. 그저 2박 3일이라는 한정된 시간과 철원이라는 한정된 공간에 아버지의 이혼 선언으로 머릿속이 복잡해진 한 가족을 묶어두고 구성원들이 느끼는 다양한 감정과 구성원 간에 발생하는 미묘한 긴장감을 충실히 담아낼 뿐이다. 영화는 이렇게 금속 느낌의 회색빛 화면을 배경으로 한 발짝 뒤에 서서 한 가족을 지켜본다. 이 답답한 2박 3일의 시간은 영화 속 가족 구성원 뿐 아니라 관객에게도 가족 관계에 대해 깊이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선사한다. 2014년 한 해를 통틀어 가장 인상적인 데뷔작 중 한 편인 동시에, 가족 관계를 고찰한 최근 한국영화 중에서 단연 돋보이는 영화다.



## 한여름의 판타지아

A Midsummer's Fantasia

### 줄거리

장편 데뷔작 <회오리 바람>(2009)과 두 번째 장편영화 <잠 못 드는 밤>(2013)으로 국내외 평단으로부터 호평을 받은 장건재 감독의 신작이다. 또한 일본 나라영화제 집행위원장이자 일본영화의 대표적인 여성감독인 가와세 나오미의 제안을 받아 나라영화제의 제작지원을 통해 완성된 작품이기도 하다. 영화감독 김태훈은 일본의 지방 소도시인 고조시에서 새 영화를 찍으려고 한다. 그는 조감독 박미정과 함께 시나리오 집필을 위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그러던 중 시청 직원인 유스케와 겐지라는 이름의 중년 남성의 사연에 깊은 인상을 받는다. 김 감독은 떠나기 전날 밤, 이상한 꿈에서 깨어나, 고조시의 밤하늘을 쳐다본다.

### 감독\_장건재

장편 데뷔작 <회오리 바람>(2009)은 밴쿠버영화제 용호상을 비롯한 다수의 상을 수상했고, 로테르담 등 15개 이상의 국제영화제에 초청되었다. 두 번째 장편영화 <잠 못 드는 밤>(2012)은 전주와 에든버러영화제 등에서 수상했고 다수의 국내외 영화제에서 상영되었다. 2009년에는 김우리 프로듀서와 함께 영화사 모쿠슈라를 설립했으며, 2012년부터 용인대학교 영화영상학과에서 강의하고 있다. 최신작 <한여름의 판타지아>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한국영화감독조합상-감독상을 수상했고, 서울독립영화제에서는 심사위원 특별언급된 바 있다.



감독\_장건재 JANG Kun-jae  
한국, 일본 | 2014 | 96min  
극영화 | BW&Color | 전체관람가

06.06(토) 16:30 | 무주산골영화관 반디관

관객과의 대화★

### 영화에 대하여

영화는 2부로 나뉘어져 있다. 흑백 다큐멘터리의 형식을 차용한 1부는 영화감독 김태훈과 조감독 박미정의 고조시 방문기이다. 시나리오 집필을 위해 조사차 영화의 배경이 될 일본 나라현의 소도시인 고조시에 도착한 태훈과 미정은 시청 직원인 유스케와 마을주민인 겐지의 가이드를 받아 고조시 구석구석을 돌아보며 마을 사람들을 인터뷰한다. 1부가 가와세 감독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실제로 고조시를 방문했던 장건재 감독의 여행 수첩에 담겼던 내용과 마을 주민과의 실제 인터뷰 촬영 장면을 토대로 재구성한 영화라면, 화사한 느낌의 컬러 영화로 만들어진 2부는 여행차 고조시를 방문한 한국 여배우 혜정과 현지에서 우연히 만나 가이드를 차정한 유스케가 서로에게 끌리는 과정을 담은 일종의 멜로 영화다. 그러니까 2부는 결국 1부에서 등장한 시청직원 유스케가 들려준 한국 여자와의 로맨스를 영화로 만든 셈이다. 이렇게 감독은 1부와 2부를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는 한편 1부와 2부의 곳곳에 배치된 다양한 영화적 장치들을 통해 하나의 공간을 중심으로 과거와 현재, 현실과 환상을 자유롭게 넘나든다. 영화는 그렇게, 이제껏 한국영화에서 볼 수 없었던 독특하고 특별한 멜로영화이자 제목 그대로 한여름의 환상곡(幻想曲)인 동시에 영화 만들기에 관한 일종의 '메타' 영화가 된다. 두 편의 전작을 통해 사실적인 연출력으로 국내외에서 인정받았던 장건재 감독은 흥미로운 이야기와 독특한 형식, 그리고 김새벽과 이와세 료의 자연스러운 연기를 통해 자신의 영화를 새로운 영역에 진입시키며 다시 한 번 자신의 재능을 입증하고 있다.





# picnic cinema

'관' 섹션에서는 다양한 주제를 새롭고 독창적인 시선으로 담아내며 이를 통해 영화의 미학적 지평을 넓힌 국내외 영화들을 엄선하여 상영한다. 올해에는 예년에 비해 조금 더 다양한 국가의 영화들을 상영한다. 최신 개봉작과 함께 국내영화제 상영작, 개봉예정신작, 다시 주목할 만한 기개 봉작, 복원된 한국 고전영화 등 총 31편의 국내외 영화가 상영된다.

먼저 국내 영화제를 통해 일부 관객들만 만날 수 있었던 영화 4편이 올해 무주산골영화제를 통해 다시 공개된다. 2013년 칸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이후 상영되는 국내 영화제마다 화제가 되었던 알렉산더 페인의 최신작이자 아버지와 아들의 여행을 통해 가족의 가치를 되돌아보게 하는 아름다운 흑백영화 <네브라스카>, 그리고 오래전 산불로 황폐해져버린 숲 속에서 도로의 중앙선을 그리는 일을 하는 두 남자를 통해 인생과 환경 문제를 환기시키는 데이비드 고든 그린 감독의 2013년 베를린영화제 은곰상 수상작 <프린스 아발란체>가 상영된다. 또한 영국 북부의 브래드포드를 배경으로 오스카와 일드의 동영 동화를 각색한 영국의 떠오르는 여성감독 클라이오 바나드 감독의 두 번째 장편 극영화이자 2013년 최고의 영국영화 중 한 편으로 손꼽히는 <이기적인 거인>과 미국 영화전문지 필름코멘트 선정 2012년 미국 미개봉 올해의 영화 5위에 선정되며 그 작품성을 인정받았던 필리핀산 휴먼 코미디 영화 <브와카우>를 상영한다.

그리고 정식으로 수입되어 곧 극장에서 만나게 될 3편의 개봉 예정작을 상영한다. 일본의 동영 만화를 원작으로, 드라마로 제작되어 많은 이들의 식욕을 자극했던,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개봉 기대작 <심야 식당>과 마틴 루터 킹을 비롯한 흑인 인권운동가들이 흑인의 참정권을 요구하기 위해 '셀마'에서부터 '몽고메리'까지 행진했던 1965년도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로, 올해 미국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문제와 맞물리며 미국에서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2015년 아카데미영화상 주제가상 수상작 <셀마>, 그리고 일본 유명 동화작가 미야노시 타츠야의 150만 부 판매고를 올린 베스트셀러 시리즈를 원작으로 국내 어린이 관객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애니메이션 <고녀석 만나겠다>의 속편 <고녀석 만나겠다2: 함께라서 행복해>가 상영된다. 또한 어린이와

가족 관객을 위해 영국의 '국민 곰돌이'를 주인공으로 한 실사영화 <패딩턴>이 상영된다.

이와 함께 국내 극장에서 상영되지 못하고 IPTV와 블루레이 시장으로 직행한 두 편의 영화를 상영하는데, 일본의 대표적인 휴먼 코미디 영화 감독 야구치 시노부의 최신작이자 최근 <기생수>에서 활약한 훈남 배우 소메타니 쇼타가 주연을 맡은 유쾌한 입업 청춘 영화 <우드잡>과 미국 FBI의 창설자 제이 에드가 후버의 일생을 다룬 클린트 이스투우드 감독,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주연의 <제이. 에드가>가 그 주인공이다.

또한 엄선된 최신 극장 개봉작 16편이 소개된다. 프랑스 영화의 거장 올리비에 아사야스 감독의 최신작 <클라우즈 오브 실스마리아>와 벨기에의 거장 다르덴 형제가 연출하고 마리옹 꼬띠아르가 주연을 맡은 <내일을 위한 시간>, 영국 영화의 심장이라 일컬어지는 테렌스 데이비스와 켄 로치 감독의 최신작 <더 딥 블루 씨>와 <지미스 홀>, 그리고 23년 만에 디지털 리마스터링 버전으로 다시 돌아온 레오스 카락스 감독의 걸작 <퐁네프의 연인들>, 이렇게 유럽 거장 감독들의 영화 5편이 상영된다.

아울러 전 세계 평단과 관객을 흥분시켰던 6편의 유럽 영화가 상영된다. 최근 전 세계 평론가들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스웨덴 출신의 루벤 외스트룬드 감독이 연출한 <포스 마주어: 화이트 베케이션>, 프랑스의 대표감독 베르트랑 보넬로 감독이 연출을 맡고 가스파르 울리엘과 레아 세이두가 출연한 <생 로랑>, 올해 아카데미 영화상 외국어영화상을 비롯하여 전 세계 56개 영화상을 휩쓴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폴란드 흑백영화 <이다>, 유럽과 미국에서 2014년 올해의 영화 리스트에 빠짐없이 이름을 올린 SF영화의 걸작 <언더 더 스킨>, 2014년 칸영화제 비평가 주간 상영되어 대상을 비롯한 3개의 상을 휩쓸며 화려하게 데뷔한 우크라이나 출신의 미로슬라브 슬라보슈비츠키 감독의 강렬한 데뷔작 <트라이브>, 카메라조차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한정된 공간에서 오직 내러티브의 힘으로 영화를 끌고 나가는 톰 하디 주연의 <로크>가 상영된다.

그리고 3편의 아시아 영화와 1편의 남미 영화가 상영되는데, 2013년 비평가주간 관객상을 수상한 따뜻한 감성의 인도 멜로 영화 <린치박스>와 미디어와 SNS가 만들어낸 여론 재판으로 한 사람의 삶을 파멸시키는 과정을 담아낸 웰메이드 일본 스릴러 <백설공주 살인사건>, 팔레스타인의 현실을 담아낸 2013년 칸영화제 주목할만한 시선 심사위원상 수상작 <오마르>, 젊은 도시 청춘 남녀의 우울과 사랑을 감각적으로 담아낸 1965년생 늦깎기 영화감독 구스타보 타레토의 장편 데뷔작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사랑에 빠질 확률>이 상영된다.

이와 함께 아카데미영화상 다큐멘터리 부문에 노미네이트되었던 사진을 다룬 화제의 다큐멘터리 2편이 상영된다. 먼저 빔 벤더스의 아티스트 삼부작 중 마지막 영화이자 위대한 사진작가 세바스티안 살가두의 작품세계를 담은 다큐멘터리 <제네시스: 세상의 소금>과 누구에게도 공개된 적이 없었던 15만 장의 사진을 남기고 사망한 미스터리 천재 사진

작가 비비안 마이어의 실체를 추적하는 흥미 만점의 다큐멘터리 <비비안 마이어를 찾아서>를 상영한다.

마지막으로 4편의 한국영화를 상영하는데, 탄탄한 스토리와 아역배우들의 상큼한 연기로 화제를 모았던 가족영화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이 배리어프리 버전으로 상영되며, 김훈 작가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한 임권택 감독의 102번째 장편영화 <화장>과 1965년 개봉 당시 전국을 눈물바다로 만들었던 화제의 영화이자 한국영상자료원의 최신 발굴 복원작 중 한편인 김수용 감독의 영화 <저 하늘에도 슬픔이>가 상영된다. 그리고 한국영상자료원이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제작한 김종관 감독의 트레일러 <아카이브의 유령들>(문소리, 한예리, 권용출 연)을 상영하는데, <저 하늘에도 슬픔이>와 함께 상영된다.

※ 공동주최 : 한국영상자료원



##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How to Steal A Dog 배리어프리 버전

감독 김성호 KIM Sung-ho

한국 | 2014 | 109min | 극영화 | Color | 전체관람가

06.05(금) 13:30 | 예체문화관 대공연장 ★관객과의 대화

아역 배우들의 깜찍한 연기와 탄탄한 스토리로 호평을 받았던 화제의 한국영화, 아빠와 함께 집을 잃어버린 지소, 엄마 그리고 동생 지석이와 미니 붕고차에서 지낸지 벌써 한 달이다. 10살 지소의 꿈은 집에서 자신의 생일파티를 하는 것이다. 집을 구하기 위해 적당한 부잣집에서 기르는 적당한 크기의 개를 '짐깐' 훔쳐다가 돌려주고 포상금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이들의 엉뚱함과 재치 있는 장면들로 보는 내내 즐거운 웃음을 지으며 행복하지만, 사실은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과 시대에 대한 이야기다. 시청각장애인도 함께 볼 수 있는 배리어프리 버전으로 상영된다.





## 고녀석 맛나겠다2: 함께라서 행복해

You Are So Yummy: Happy To Be With You

감독\_최경석, 노나카 카즈미 CHOI Kyung-seok, Kazumi Nonaka  
한국 | 2015 | 80min | 애니메이션 | Color | 전체관람가

06.06(토) 13:00 | 예체문화관 대공연장 ★관객과의 대화

일본 유명 동화작가 미야니시 타츠야의 150만 부 판매고를 올린 베스트셀러 시리즈를 원작으로 국내 어린이 관객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애니메이션 <고녀석 맛나겠다>의 속편. 평화로운 공룡들의 백악기 초원. 티라노사우루스 보스인 아빠 제스타와 엄마 세라 사이에서 아들 미르가 태어난다.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라던 어느 날, 불의의 사고로 엄마가 세상을 떠나고, 호시탐탐 자리를 노리던 발드에 의해 아빠마저 잃는다. 부모가 모두 세상을 떠난 뒤 미르는 정처 없이 떠돌게 된다. 전편과 달리 100% 순수 국내 자본을 들여 일본의 전문 인력에게 일부 용역을 주는 형태로 진행된 국내 애니메이션의 첫 사례로 하반기 흥행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 화제의 애니메이션이다.



## 내일을 위한 시간 Two Days, One Night

감독\_장 피에르 다르덴, 릭 다르덴 Jean-Pierre & Luc Dardenne  
벨기에, 프랑스, 이탈리아 | 2014 | 95min | 극영화 | Color | 12세이상관람가

06.05(금) 11:00 | 무주산골영화관 반디관

<아들>, <로나의 침묵>, <자전거를 탄 소년> 등 전작을 통해 사회와 인간을 바라보는 진심을 담아내왔던 벨기에의 거장 다르덴 형제의 신작. 복직을 위해 16명의 동료와 만나야 하는 산드라에게 주어진 시간은 재투표가 있는 월요일 아침이 오기 전까지의 주말 이틀이다. 이를 동안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각각의 인물 군상들을 통해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병폐를 냉정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좌절 속에서 계속되는 산드라의 도전과 그녀 주변 인물들을 통해 보여 지는 지지와 연대는 가슴 뭉클하게 다가온다. 세계적인 스타 배우 마리옹 꼬띠아르는 산드라 그 자체로 느껴지게 하는 완벽한 연기를 선보인다. 2014년 칸영화제 경쟁부문에서 상영되었다.



## 네브라스카 Nebraska

감독\_알렉산더 페인 Alexander Payne  
미국 | 2013 | 115min | 극영화 | B&W | 15세이상관람가

06.07(일) 11:00 | 예체문화관 대공연장

<사이드 웨이>, <디센던트>를 연출한 알렉산더 페인 감독의 최신작. 나이 들고 쇠약한 아버지가 잡지 광고 전단지 받고 자신이 복권에 당첨되었다 믿으며, 네브라스카로 떠나려 한다. 온 가족이 아버지를 말리고 집으로 다시 모시고 와도 소용없다. 결국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는 아들의 이야기를 그린 로드무비. 한때 누군가의 아버지로 누군가의 남편으로 살아온 삶, 때론 누군가에게 짐이 되기도 하는 존재. 가족의 관계는 한없이 가볍고, 변질되기 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하게 될 때, 그렇게 우리는 가족이 된다. 아름다운 흑백 화면 속에서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이 영화에서 우디 역할을 맡은 브루스 던은 2013년 칸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을 수상했다.



## 더 딥 블루 씨 The Deep Blue Sea

감독\_테렌스 데이비스 Terence Davies  
미국, 영국 | 2011 | 98min | 극영화 | Color | 청소년관람불가

06.07(일) 19:30 | 무주산골영화관 반디관

감독 데뷔 이후 20년간 단 8편만을 연출할 정도로 매 영화마다 빛으로 세공하듯 공을 들이는 현대 영국 영화를 대표하는 서정시인 테렌스 데이비스 감독의 최신작이며 영국의 전설적인 작가 테렌스 라티건의 극대본을 원작으로 한 영화. 정열, 자유보다는 절제와 노력을 배우고 자란 여인 헤스터. 남편 윌리엄과의 답답한 결혼 생활 속에서 자유분방하고 열정적인 프레디를 만나고 첫눈에 반하게 된다. 남편이 사실을 알게 되어도 마음을 멈출 수 없는 헤스터. 그녀의 견장을 수 없는 소유욕과 집착은 그녀의 사랑을 점점 파멸로 몰고가기 시작한다. 테렌스 데이비스 감독의 최고의 걸작이라고 평가받는 작품이다. 레이철 와이즈와 톰 히들스턴이 출연한다.



## 런치박스 The Lunchbox

감독\_리테쉬 바트라 Ritesh Batra  
인도, 프랑스, 독일 | 2013 | 104min | 극영화 | Color | 12세이상관람가

06.07(일) 16:30 | 무주산골영화관 태권관

2013년 칸영화제에서 비평가주간 관객상을 비롯하여 전 세계 국제영화제에서 9개 부문 상을 받은 화제의 인도 영화. 인도 뭄바이에는 120년 전통의 도시락통을 배달하는 '다바왈라'라는 사람들이 있다. '다바왈라'가 도시락을 잘못 배달할 확률은 0.1%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화는 이 0.1%의 가능성에서 시작된다. 남편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도시락을 정성스럽게 싸 '일라', 남편에게 보낼 도시락이 정년퇴직을 앞둔 50대 중년 회사원 '사잔'에게 잘못 배달된다. 중년의 사랑을 현실감있고 따뜻하게 그린 영화로 '사잔'의 역할을 맡은 이라파 칸은 <라이프 오브 파이>와 <슬럼독 밀리언네어> 등에 출연한 바 있다.



## 로크 Locke

감독\_스티븐 나이트 Steven Knight  
미국, 영국 | 2013 | 85min | 극영화 | Color | 15세이상관람가

06.06(토) 14:00 | 무주산골영화관 태권관

우리의 삶에서 모든 걸 버릴 만큼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 가족, 사랑, 일 기타 등등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일까. 능력 있는 건설현장 감독 아이반 로크는 중요한 프로젝트를 앞둔 전날 밤, 전화 한 통으로 인해 성공적이었던 삶이 혼란에 빠진다. 건물을 건설할 때 작은 실수는 건물의 균열을 가져올 수 있듯 한 번의 실수가 가져온 인생의 균열을 바로잡기 위해 인간힘을 쓰는 한 남자의 모습이 인상적이다. 차 속이라는 한정된 공간과 오직 통화의 내용으로 이야기를 진행하는 파격적인 형식 속에서 인물의 심리를 밀도있게 그려낸 수작이다. <인셉션>과 <다크나이트 라이즈>로 익숙한 배우 톰하디는 한정된 공간 속 시시각각 변하는 주인공의 심리를 탁월하게 소화해냈다.





## 백설공주 살인사건 The Snow White Murder Case

감독\_나카무라 요시히로 Yoshihiro Nakamura  
 일본 | 2014 | 126min | 극영화 | Color | 15세이상관람가  
 06.07(일) 11:30 | 무주산골영화관 태권관

화장품 회사에서 근무하는 미모의 여직원이 살해당한다. 방송 계약직 조연출 유지는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살인사건의 전말들을 업데이트하기 시작한다. 미디어와 SNS가 만들어낸 여론 재판으로 한 사람의 삶을 파멸시키는 과정을 담아낸 스릴러 영화로 현대사회에서 전 세계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며,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 일을 현실감 있게 그리고 있다. 지금도 우리의 곁에서 똑같은 일이 계속되고 있기에 더욱 섬뜩하게 느껴진다. <고백>, <속죄> 등의 작품으로 알려진 미나토 카나에의 소설을 영화한 작품이다.



##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사랑에 빠질 확률 Medianeras

감독\_구스타보 타레토 Gustavo Taretto  
 아르헨티나,스페인,독일 | 2011 | 94min | 극영화 | Color | 15세이상관람가  
 06.05(금) 14:00 | 무주산골영화관 태권관

제멋대로 지어진 건축물들과 엉망으로 개발된 도시 부에노스 아이레스는 혼란스럽고 예측 불가능하며, 모순적인 우리와 닮아 있는 도시다. 공황장애를 겪고 집에서 머물기를 좋아하는 마틴과 힘든 연애를 끝내고 남은 상처에 힘겨워하는 마리아나가 있다. 가까이 있으면서도 서로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들로 가득찬 도시, 북적거리는 그러나 소통 없는 그 도시에서 고독한 존재로 살아가는 청년들의 고립감과 단절감을 감각적으로 담아낸 아르헨티나판 <건축학개론>. 누군가를 운명처럼 만나기를 기대하는 우리들의 연애에 대한 판타지를 시각적으로 풀어낸 영화. 과연 우리의 사랑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 1965년생인 구스타보 타레토 감독의 감각적인 장편 데뷔작.



## 브와카우 Bwakaw

감독\_준 로블레스 라나 Jun Robles Lana  
 필리핀 | 2012 | 110min | 극영화 | Color | 15세이상관람가  
 06.07(일) 16:00 | 예체문화관 대공연장

칠순에 커밍아웃한 동성애자 레네는 주인 잃은 개와 단둘이 살고 있다. 그는 친구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재분배하기 위해 유언장을 다시 쓰기도 하고, 몇 년 전 세일에서 장만한 관을 시골집 한가운데에 놓고선 인간다운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 한편 자신의 개가 병들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구하는데... 세상에 상처받은 둘의 독특한 우정을 다룬 유쾌한 휴먼 코미디로, 첫 공개되었던 필리핀 시네말라 야 영화제에서 관객상과 남우주연상을 수상했으며, 영화전문지 필름코멘트 2012년 미국 미개봉 올해의 영화 5위에 선정된 수작이다.



## 비비안 마이어를 찾아서 Finding Vivian Maier

감독\_존 말루프, 찰리 시스켈 John Maloof, Charlie Siskel  
 미국 | 2013 | 84min | 다큐멘터리 | Color | 전체관람가  
 06.07(일) 18:30 | 예체문화관 대공연장

2007년 경매장을 찾은 존 말루프에 의해 우연히 15만 장의 필름이 세상에 공개된다. 존 말루프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비비안 마이어'의 사진을 업로드 하면서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존 말루프는 다른 사람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만의 삶을 온전히 살다간 '비비안 마이어'의 숨겨졌던 삶을 추적한다. 누구에게도 공개된 적 없던 사진을 남긴 천재 사진작가 '비비안 마이어', 그녀는 누구인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한 개인의 삶을 미스터리한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낸 감독의 뛰어난 연출력이 돋보인다. <비비안 마이어를 찾아서>는 2015년 미국과 영국 아카데미상 최우수 다큐멘터리에 노미네이트 되었다.



## 생 로랑 Saint Laurent

감독\_베르트랑 보넬로 Bertrand Bonello  
 프랑스 | 2014 | 150min | 극영화 | Color | 청소년관람불가  
 06.07(일) 21:00 | 예체문화관 대공연장

<관용의 집: 라폴로니드> 이후 전 세계 평단의 관심을 한몸에 받는 프랑스 대표 감독으로 자리매김한 베르트랑 보넬로 감독의 7번째 장편 극영화로 2014년 칸영화제 경쟁부문 상영작이다.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이자 21살에 크리스찬 디올의 수석 디자이너가 된 천재, 여성에게 바지 정장을 만들어준 패션 혁명가 이브 생 로랑의 삶에 관한 이야기다. 영화는 시간을 뒤섞어 화려했던 이브 생 로랑의 삶과 1989년 이후의 삶을 대비시키며 이야기를 전개한다. 탐미주의적인 베르트랑 보넬로 감독의 감각적인 영화 세계는 영화, 부, 아름다움 등을 손에 넣은 채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했던 생 로랑의 삶과 잘 어울린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연기파 배우인 가스파르 울리엘과 레이 세이두, 루이 가벨이 출연한다.



## 셀마 Selma

감독\_에바 두버네이 Ava DuVernay  
 영국,미국 | 2014 | 128min | 극영화 | Color | 12세이상관람가  
 06.06(토) 15:30 | 예체문화관 대공연장 + 산골토크(영화감독 변영주)

1965년도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로 올해 미국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문제와 맞물리며 미국에서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영화이기도 하다. 영화는 마틴 루터 킹 박사가 선거 차별 금지를 위해 셀마에서부터 몽고메리 그리고 알라바마까지 각종 위협을 극복하고 시위행진을 하여 존슨 대통령으로부터 1965년 선거권법에 승인을 얻어내게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2015년 제87회 아카데미 영화상 주제가 상을 수상한 이 영화는 단순히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졌던 '역사를 바꾼 흑인들의 위대한 행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지금 이 순간 우리 앞에 펼쳐지는 현실과 닮아 있다. 2015년은 '셀마-몽고메리 행진'이 일어난 지 50주년인 되는 해이기도 하다. 영화 상영 후 변영주 영화감독과 영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산골토크가 마련된다.





## 심야식당 Midnight Diner

감독\_마츠오카 조지 Joji Matsuoka

일본 | 2015 | 120min | 극영화 | Color | 12세이상관람가

06.06(토) 18:30 | 예체문화관 대공연장 + 산골토코(백은하기자)

한국에서도 45만 부 이상의 판매고를 올리며 많은 사랑을 받은 아베 야로의 동명 영화를 원작으로, 최근 시즌 3까지 제작, 방영되면서 일본은 물론 국내에서도 큰 인기를 끈 유명 일본드라마 <심야식당>의 극장판이다. 신주쿠 골든가의 뒷골목, 자정이 되면 여는 작은 식당 하나. 마스터가 건네는 한잔의 술과 정성스런 음식을 먹으며 고단했던 사연을 풀어놓는다. 이번 <심야식당> 극장판에는 마스터와 손님들이 전하는 세 가지 음식과 이야기가 담백하게 담겨 있다. 드라마 <심야식당 시즌3>을 연출한 감독 마츠오카 조지 감독이 연출을 맡고 우리에게 영화 <비밀>의 아빠 역할로 익숙한 배우 코바야시 카오루가 드라마와 마찬가지로 마스터 역할을 맡았다. 영화 상영 후 백은하 기자와 영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산골토코가 마련된다.



## 아카이브의 유령들 Phantoms of the Archive

감독\_김종관 KIM Jong-kwan

한국 | 2014 | 33min | 극영화 | Color | 전체관람가

06.05(금) 11:00 | 무주산골영화관 태권관 ★관객과의 대화

한국영상자료원이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제작한 4개의 트레일러 모음이다. 김종관 감독의 섬세한 연출력이 돋보이는 작품으로 한국영상자료원의 '발굴', '복원', '보존', '상영'이라는 4가지 키워드를 뽑아 테마별로 하나씩 이야기를 만들었다. 영화로 만든 영화에 대한 이야기. 한국영화라는 이름의 유령들과 함께 하는 여정. 영화는 잊혀질 모든 것들에 대한 기억이다. 어둠 속에서 환명을 잡아도 빛이 새어 나오면 잡을 수 없는 것처럼 말이다. 김수용 감독의 <저 하늘에도 슬픔이>와 함께 상영된다.

※ 공동주최 : 한국영상자료원



## 언더 더 스킨 Under the Skin

감독\_조나단 글레이저 Jonathan Glazer

영국 | 2013 | 108min | 극영화 | Color | 청소년관람불가

06.05(금) 20:00 | 무주산골영화관 태권관 + 산골토코(영화평론가 이용철)

'라디오헤드', '자미로콰이' 등 유명 가수의 뮤직비디오를 연출한 조나단 글레이저 감독이 영화 <섹시, 비스트> 이후 10년 만에 내놓은 장편영화이자 할리우드 섹시 아이콘인 스킷렛 요한슨의 첫 단독 주연 작품이다. 외계에서 온 에일리언이 아름다운 지구인 '로라'의 탈을 쓰고 거리의 남자들을 유혹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섬뜩한 과정을 그린 SF 영화. 인간의 외피를 쓰고 인간의 감정으로 인해 혼란스러워하는 외계인과 인간성을 상실한 지구인의 대비가 인상적이다. 2014년 올해의 영화 리스트에 빠짐없이 이름을 올리며 전 세계 평단을 흥분시킨 화제의 영화로 장르적 상상력을 미니멀하게 풀어낸 실험성 강한 SF 스릴러의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영화 상영 후 이용철 영화평론가와 영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산골토코가 마련된다.



## 오마르 Omar

감독\_하니 아부 아사드 Hany Abu-Assad

팔레스타인 | 2013 | 96min | 극영화 | Color | 15세이상관람가

06.07(일) 20:00 | 무주산골영화관 태권관

전 세계인의 관심이 주목되어 있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분쟁을 배경으로 한 인물을 통해 현재 그들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영화. 팔레스타인 청년 '오마르'는 여자친구 '나디아'를 만나기 위해 분리장벽\*을 수시로 넘나든다.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곳에서 자신의 일상을 지켜내기 위해 이중침자가 된 한 남자의 이야기로 예측할 수 없는 클라이막스는 가치 충격적이다. 2013년 칸영화제 주목할만한 시선 심사위원상 수상을 비롯하여 유수 영화제에 초청되어 찬사를 받은 영화다.

\*분리장벽 : 이스라엘 정부가 테러 공격 차단을 명분으로 2002년부터 요르단강 서안에 건설 중인 장벽. 서안에 사는 팔레스타인 주민 수만 명의 삶이 장벽 안과 밖으로 분리된 채 파괴되고 있다.



## 우드잡 Wood Job!

감독\_야구치 시노부 Shinobu Yaguchi

일본 | 2014 | 116min | 극영화 | Color | 12세이상관람가

06.05(금) 11:00 | 예체문화관 대공연장

<스윙걸즈>, <해피플라이트> 등으로 잘 알려진 휴먼 코미디의 대가 야구치 시노부 감독의 신작. 자연에서의 소박한 생활과 개성 있는 캐릭터들이 어우러진 매력적인 소설 <가무사리 숲의 느긋한 나날>을 원작으로 하고 있다. 대학시험에 낙방하고, 여자 친구에게도 차이고 되는 것 하나 없는 청년 히라노 유키가 산림 관리 취업 연수를 덜컥 신청하면서 벌어지는 해프닝을 유쾌하게 풀어낸 코미디 영화이며 철없는 도시 소년 이 숲과 나무에 둘러싸여 성장하는 입업 청년 영화이기도 하다. 최근 <기생수>에서 활약한 훈남 배우 소메타니 쇼타와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의 나가사와 마사미가 열연을 펼친다. 국내에서는 극장 개봉하지 못하고 IPTV로 직행했다.



## 이기적인 거인 The Selfish Giant

감독\_클라이오 바나드 Clio Barnard

영국 | 2013 | 91min | 극영화 | Color | 15세이상관람가

06.06(토) 11:00 | 예체문화관 대공연장

영국 북부의 브래드포드를 배경으로 오스카 와일드의 동명 동화를 각색한, 영국의 떠오르는 여성감독 클라이오 바나드의 강렬한 두 번째 장편 극영화. 13살의 아버지와 스위프티는 학교와 이웃들로부터 소외된다. 이기적인 거인인 고철상 키튼을 만나고 말과 수레를 이용해 고철을 수집하기 시작한다. 말을 더 잘 다루는 스위프티를 편애하는 키튼으로 인해 두 사람은 점점 멀어지고, 결국엔 모든 것을 바꾸어 버리는 충격적이고 비극적인 사건으로 이어진다. 영국 노동 계층의 이야기를 다룬 현대적인 우화. 영국 영화 전문지 사이트 앤 사운드가 2013년 올해의 영화 8위에 선정한 2013년을 대표하는 최고의 영국 영화 중 한 편.





## 이다 Ida

감독\_파벨 포리코브스키 Pawel Pawlikowski  
 폴란드, 덴마크 | 2013 | 82min | 극영화 | B&W | 15세이상관람가

06.07(일) 14:00 | 무주산골영화관 태권관

고아로 수녀원에서 자란 '안나'. 수녀가 되기 전 유일한 혈육인 이모 '완다'의 존재를 알게 되고 그녀를 찾아간다. '완다'는 '안나'가 유대인이며 '이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한다. 자신의 본명인 '이다'를 찾기 위해 떠나는 로드무비. 한 개인의 기억을 통해 폴란드 역사의 풍경이 교차되는 여백의 영화. 감독이 고집스럽게 조율한 정제된 화면은 단순한 아름다움에서 그치지 않는다. 감독은 정갈한 흑백 화면 속에 여성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비극의 역사를 채워간다. 2015년 제87회 미국 아카데미 외국어영화상 및 전 세계 63개 영화상을 석권하며 전 세계 평론가들로부터 극찬을 받은 아름다운 명작.



## 저 하늘에도 슬픔이 Sorrow Even Up in Heaven

감독\_김수용 KIM Soo-yong  
 한국 | 1965 | 102min | 극영화 | B&W | 전체관람가

06.05(금) 11:00 | 무주산골영화관 태권관

1965년 국제극장에서 개봉해 서울 관객 28만 5천 명을 동원하며 당시 신상옥 감독의 <성춘향>(1961)에 이어 역대 흥행 2위를 기록했던 영화다. 전국을 울음바다로 만들었던 이 영화는 대구 명덕초등학교 5학년 이윤복 어린이가 쓴 동명의 수기를 선생님이 출판하여 국내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일련의 과정을 영화화한 작품이다. 신영균, 조미령, 주중녀, 황정순 등 당대 스타뿐 아니라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에서 옥희 역으로 전 국민의 사랑을 받은 아역배우 전영선과 성인 배우 못지 않은 감정연기를 보여준 김천만이 출연하여 화제를 모았다. 필름이 유실되어 그동안 실체를 확인할 수 없었으나 2013년 대만영상자료원에서 발견된 후 2014년 한국영상자료원에 의해 복원되었다. 국내 영화제에서는 처음으로 상영된다.  
 ※ 공동주최 : 한국영상자료원



## 제네시스: 세상의 소금 The Salt of the Earth

감독\_빔 벤더스, 훌리아노 리베이로 살가두 Wim Wenders, Juliano Ribeiro Salgado  
 프랑스, 이탈리아, 브라질 | 2014 | 110min | 다큐멘터리, 드라마 | Color | 12세이상관람가

06.06(토) 11:30 | 무주산골영화관 태권관

음악을 다룬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 무용을 다룬 <피나>에 이은 빔 벤더스 감독의 아티스트 3부작 중 사진에 다룬 마지막 영화이며, 뛰어난 재능과 인류애를 품은 세계적인 사진작가 세바스치앙 살가두와 영화감독이자 작가, 포토그래퍼이자 다큐멘터리 연출가로 알려진 빔 벤더스의 콜라보레이션과도 같은 작품이다.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전쟁과 기아의 현장에서 카메라를 들었던 사진작가 세바스치앙 살가두의 인생 스토리와 그의 작품을 관통하고 있는 인류와 자연에 대한 존중과 박애의 정신을 담아낸다. '사진예술을 다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화'로 평가받으며 2014년 칸영화제 주목할만한 시선 부문 특별상을 수상했다.



## 제이. 에드가 J. Edgar

감독\_클린트 이스트우드 Clint Eastwood  
 미국 | 2011 | 137min | 극영화 | Color | 청소년관람불가

06.05(금) 21:30 | 예체문화관 대공연장

찬반양론의 극단적 평가를 받으며 논란을 불러일으킨 <아메리칸 스나이퍼>를 연출한 미국영화의 거장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2011년 영화. 미국의 대표적인 정보기관 FBI를 설립한 후 죽을 때까지 무려 48년간을 종신 국장으로 재임한 제이 에드가 후버에 관한 전기 영화다. 실제로 미국 사회에서 후버에 대한 평은 존경과 비난을 넘나든다. 영화는 후버의 명성을 강조하지도, 비판하지도 않는 시선을 유지하며, 그동안 상대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던 후버의 끝없는 권력에 대한 욕망과 나약하고 마마보이에 인종차별주의자로서의 면모를 들춰내며 인간 후버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전개된다.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독심 있는 연출과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뛰어난 연기가 돋보인다.



## 지미스 홀 Jimmy's Hall

감독\_켄 로치 Ken Loach  
 영국, 아일랜드, 프랑스 | 2014 | 109min | 극영화 | Color | 12세이상관람가

06.06(토) 11:00 | 무주산골영화관 반디관

칸영화제 경쟁부문에 최다 진출한 영국영화의 거장 켄 로치 감독의 최신작.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후 혼란을 겪고 있는 1932년 아일랜드를 무대로, 사람들의 희망과 꿈을 이어갈 수 있는 마을회관을 지키려다 추방당한 제임스 그랄튼의 실화를 다룬 영화다. 아름다운 풍경과 몽글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지미스 홀>은 과거 아일랜드의 이야기지만 우리의 현실과 너무나 흡사해 가슴을 먹먹하게 만든다. 역사적 사건을 통해 현재를 돌아보게 하는 켄 로치 감독의 <지미스 홀>이 그의 은퇴작이 될 거라는 무성한 소문과 함께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작품이다.



## 클라우드 오브 실스마리아 Clouds of Sils Maria

감독\_올리비에 아사야스 Olivier Assayas  
 스위스, 독일, 프랑스 | 2014 | 124min | 극영화 | Color | 15세이상관람가

06.06(토) 21:30 | 예체문화관 대공연장

프랑스 영화잡지 '카이에 뒤 시네마'의 비평가로 영화 인생을 시작한 프랑스의 거장 올리비에 아사야스 감독의 신작. 20년 전 연상의 상사인 '헬레나'를 유혹해 자살로 몰아가는 매력적인 캐릭터 '시그리드' 역으로 스타가 된 마리야는 자신을 스타로 만들어준 이 연극의 '리메이크 연극'에 출연을 제안 받게 된다. 그러나 그녀가 받은 제안은 젊은 '시그리드'가 아닌 '헬레나'의 역이다. 과거의 영광과 세월이 흘러 바뀐 세상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만 하는 것 사이의 갈등이 아름다운 스위스 풍경과 함께 어우러진다. 허구와 현실을 넘나드는 줄리엣 비노쉬, 크리스틴 스투어트, 클레이 모레츠 세 여배우의 눈부신 연기와 감독의 우아한 연출이 압권이다. 2014년을 대표하는 필견의 영화.





## 트라이브 Plemya

감독\_미로슬라브 슬라보슈비츠키 Myroslav Slaboshpytskiy  
우크라이나 | 2014 | 132min | 극영화 | Color | 청소년관람불가

06.05(금) 17:00 | 무주산골영화관 태권관

2014년 칸영화제 비평가주간 대상 및 3관왕을 시작으로 전 세계 30여개국 영화제에서 연달아 수상하며 호평을 받은 화제작, 특수기숙학교로 전학을 가게 된 청각장애우 주인공 세르게이, 학교는 평온해 보이지만 트라이브라는 조직이 학교를 잡고 있고, 어른들은 트라이브의 행동을 눈감아 주고 있다. 외부와 소통하지 못하는 그들만의 비참한 세상을 정면으로 응시하는 한편 청소년기에 가질 수 있는 사랑, 증오, 분노 등 순수한 감정을 여과 없이 담아낸다. 대사, 자막, 음악도 없는 <트라이브>에는 최소한의 소리만 존재하며, 대사가 사라져 버린 영화는 인물들의 손짓과 움직임에만 집중하게 한다. 영화에 출연하는 모든 배우는 1년에 걸친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연기 경험이 전무한 실제 청각 장애우다.



## 패딩턴 Paddington 한국어 더빙

감독\_폴 킹 Paul King  
영국, 프랑스, 캐나다 | 2014 | 95min | 극영화 | Color | 전체관람가

06.07(일) 13:30 | 예체문화관 대공연장

1957년 동화작가 마이클 본드의 <내 이름은 패딩턴>이 세상에 태어난 이래로 영국에서 '패딩턴'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말 그대로 영국의 '국민 곰돌이' 이야기를 다룬 영화다. 지진으로 페루의 집을 잃은 아기 곰은 숙모의 도움으로 마멀레이드 잼과 가방을 들고 런던으로 향한다. 런던에 도착한 패딩턴은 브라운 가족을 만나 새로운 가족을 찾아 나선다. 물론 가는 곳마다 사건, 사고가 터지지만, 이 사랑스러운 곰을 어찌 미워할 수 있을까. 영국으로 들어간 말쑥꾸러기 이방인 패딩턴을 바라보는 영화 속 인물들의 시선은 이방인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기도 하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한국어 더빙 버전으로 상영한다.



## 포스 마쥬어: 화이트 베케이션 Turist

감독\_루벤 외스트룬드 Ruben Ostlund  
스웨덴, 프랑스, 덴마크, 노르웨이 | 2014 | 120min | 극영화 | Color | 15세이상관람가

06.06(토) 19:30 | 무주산골영화관 태권관 + 산골토크(한국영상영화치료학회-전북지부)

최근 전 세계 평단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스웨덴 출신의 루벤 외스트룬드의 신작이자 2014년의 대표 하는 올해의 영화 중 한 편, 일에 쫓기는 가장 토마스가 가족들과 함께 알프스 산맥으로 스키 휴가를 떠난다. 야외 식당에서 식사하고 있는 가족의 앞으로 산골대기에서부터 눈덩이가 쏟아진다. 엄청난 광음과 함께 돌진하는 눈덩이에 공포에 사로잡힌 가족들은 토마스를 애타게 부른다. 찰나의 순간 토마스의 본능적인 선택은 한 가족을 심리적 위기 상태에 빠뜨린다. 한 가정의 돌이킬 수 없는 실수로 인해 발생한 가족 구성원의 심리와 긴장감을 밀도있게 담아낸다. 2014년 칸영화제 주목할만한 부문 심사위원상을 수상하였다. 영화 상영 후 한국영상영화치료학회-전북지부가 주관하는 산골토크가 마련된다.



## 퐁네프의 연인들 Les Amants du Pont-neuf

감독\_레오스 카락스 Leos Carax  
프랑스 | 1991 | 125min | 극영화 | Color | 청소년관람불가

06.06(토) 16:30 | 무주산골영화관 태권관

10대 후반부터 프랑스의 영화잡지 '카이에 뒤 시네마'에서 영화 비평을 하고, 22살에 데뷔작 <소년 소녀를 만나다(1983)>로 프랑스 영화계에 화려하게 등장한 레오스 카락스 감독의 세 번째 작품, 파리 센스강의 아홉 번째 다리 퐁네프에서 노숙자 생활을 하는 알렉스와 한쪽 시력을 잃어가는 여자 미셸의 사랑 이야기다. 모든 것을 잃어 남루하지만 자유로운 두 사람의 사랑은 사랑에 대한 다양한 감정과 여운을 갖게 한다. 레오스 카락스의 페르소나 다니 라방의 파워풀한 연기와 이제는 대배우가 된 줄리엣 비노쉬의 앳된 모습을 볼 수 있다. 1992년 한국 개봉 당시 식재된 5분 분량이 추가되어 22년 만에 국내에서 재개봉한 HD 리마스터링 버전이 상영된다.



## 프린스 아발란체 Prince Avalanche

감독\_데이비드 고든 그린 David Gordon Green  
미국 | 2013 | 90min | 극영화 | Color | 15세이상관람가

06.05(금) 19:30 | 예체문화관 대공연장

오래전 산불로 황폐해져버린 숲 속에서 도로의 중앙선을 그리는 일을 하는 두 남자를 통해 우리의 인생과 환경 문제를 환기시키는 데이비드 고든 그린 감독의 2013년 베를린영화제 은곰상 수상작, 삶의 지향점이 전혀 다른 두 사람, 엘빈과 그의 여자 친구의 동생인 랜스는 산불로 인해 황폐해진 시골 고속도로의 중앙선을 그리는 작업을 한다. 항상 차선을 그리는 일에만 몰두하는 엘빈과 바깥세상을 지향하며 명청한 행동을 일삼는 랜스는 너무나 다르다. 데이비드 고든 그린 감독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살아온 엘빈과 랜스의 우정을 유머러스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그린다. 엘빈과 랜스를 연기한 배우 폴 러드와 에일 허쉬가 펼치는 환상적인 연기 호흡은 영화 전체를 끌고 가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 화장 Revivre

감독\_임권택 IM Kwon-taek  
한국 | 2014 | 94min | 극영화 | Color | 청소년관람불가

06.05(금) 16:30 | 예체문화관 대공연장

한국 영화의 거장 임권택 감독의 102번째 작품으로 2014년 베니스영화제를 시작으로 베를린 등 전 세계 16개 영화제 공식 초청되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화장품 회사 중역인 오상무는 헌신적이고 충실한 간병인이자 남편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해낸다. 하지만 마음 한 켠에서는 부하 직원 추은주를 홀모하고 있다. 영화는 죽어가는 아내와 생기 있는 젊은 여자, 그 사이에 놓여 있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통해 인간이 가진 욕망과 스스로 욕망을 거스르는 중년 남성에게 대한 고뇌와 연민을 통찰한다. 2004년 제 28회 이상 문학상 대상 수상작인 김훈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으며 안성기와 김호정은 돋보이는 연기력으로 호평을 받았다.





# shouting cinema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락' 섹션을 위한 야외상영장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운동장 중 하나로 손꼽히는故정기용 건축가가 설계한 무주읍의 등나무운동장에 마련된다.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음악 영화 2편과 신작영화 1편, 고전영화 1편이 상영되며 다양한 공연 및 이벤트가 함께 진행된다.

먼저 많은 관객의 호평을 받았던 최고의 음악영화 2편을 소개한다. 2008년 개봉하여 7년 만에 우리에게 다시 돌아온, 최고의 음악영화 <말할 수 없는 비밀>의 디지털 리마스터링 버전이 상영된다. 가슴을 울리는 애절한 러브스토리와 두고두고 회자되었던 피아노 배를 장면, 아름다운 영화 음악으로 많은 이들의 기억에 각인되어 있는 이 영화는 연출은 물론 각본과 주연까지 맡은 중화권 최고의 만능 엔터테이너 주걸륜의 장편 데뷔작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2015년 상반기 국내 박스오피스를 강타한 최고의 화제작이자 더 이상 설명이 필요없는 강력한 음악영화 <위플래쉬>가 상영된다.



그리고, 철이 덜 든 60살 노인과 철이 다 든 10살 소년의 세대를 뛰어넘는 우정을 따뜻하게 그려낸 휴먼 코미디이자 할리우드 최고의 코미디 배우 빌 머레이가 주연을 맡은 <세인트 빈센트>가 상영된다.

마지막으로 올해에도 작년 <시네마 천국>에 이어 또 한편의 고전영화 가 상영되는데, 영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감독 중 하나로 평가받는 찰리 채플린의 영화 중에서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수작이며 지금 봐도 변함없이 가슴 아린 코믹 멜로 영화 <서커스>(리마스터링 버전)가 상영된다. 특히 1928년에 제작된 무성영화 <서커스>는 루시드 폴의 감성과 조규찬의 표현, 이병우의 소리를 가진 싱어송라이터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매직 스트로베리 사운드의 이영훈 밴드의 라이브 연주와 함께 상영된다. 약 80년 전에 완성된 과거의 무성영화와 현대 대한민국의 인디씬에서 가장 섬세한 감성의 뮤지션이 만들어낼 초여름 밤의 앙상블은 산골 무주에서 즐기는 또 한 번의 잊지 못할 영화 감상의 기회가 될 것이다.

6/5 금요일 .....



## 세인트 빈센트 St. Vincent

감독\_테오도어 멜피 Theodore Melfi  
미국 | 2014 | 102min | 극영화 | Color | 전체관람가  
06.05(금) 20:00 | 무주읍 등나무운동장

뜻밖에 이웃이 된 철이 덜 든 60살 노인과 철이 다 든 10살 소년의 유쾌한 만남을 그린 따뜻한 휴먼 코미디 영화. 엄마와 단 둘이 새집으로 이사 온 올리버는 등교 첫날,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열쇠를 빼앗겨 집에 못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얼떨결에 옆집의 까칠한 할아버지 빈센트의 손에 맡겨진다. 올리버는 빈센트와 함께 경마장, 술집 등 어린이가 가서는 안 될 곳을 따라 가지만 빈센트가 학교 악동들에게서 올리버를 구해주면서 둘은 점점 가까워진다. 경제적인 곤란, 왕따, 이혼, 실직 등을 겪는 소외된 사람들의 연대를 엿볼 수 있는 성장과 우정의 영화다. 할리우드 최고의 코미디 배우 빌 머레이와 1,500:1의 경쟁률을 뚫고 올리버 역을 꿰찬 아역배우 제이든 리버허의 연기 앙상블이 돋보인다.



## 위플래쉬 Whiplash

감독\_데미언 체즐 Damien Chazelle  
미국 | 2014 | 106min | 극영화 | Color | 15세이상관람가  
06.05(금) 22:00 | 무주읍 등나무운동장

최고의 드러머가 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있는 음악대학 신입생 앤드류는 최악의 폭군이자 누구든지 성공으로 이끄는 최고의 실력자인 플렛처 교수에게 발탁되어 그의 밴드에 들어가게 된다. 폭언과 학대를 통해 성취감과 좌절감을 동시에 안겨주는 플렛처의 교육방식은 앤드류의 집착을 이끌어내며 그를 점점 광기로 몰아간다. 영화는 아름다운 재즈 선율과 심장을 두드리는 드럼 연주 속에서 플렛처와 앤드류의 야망과 광기가 부딪치며 만들어내는 미묘한 심리를 포착하고, 이를 통해 압도적인 긴장감과 흥분을 선사한다. 2015년 상반기 국내 박스오피스를 강타한 최고의 화제작.



6/6 토요일 .....



### 서커스 The Circus with 이영훈 밴드

감독\_찰리 채플린 Charlies Chaplin  
미국 | 1928 | 72min | 극영화 | B&W | 전체관람가

06.06(토) 20:30 | 무주읍 등나무운동장  
이영훈 밴드 기타&보컬\_이영훈, 키보드\_조성태, 드럼\_조성준, 베이스\_송근호

떠돌이 찰리는 우연한 계기로 서커스단에서 일하게 되고, 악덕 고용주인 서커스 단장은 단원들을 괴롭힌다. 찰리는 단장의 의붓딸이자 단원으로 살아가는 불쌍한 소녀에게 계속해서 마음을 주지만 그녀가 좋아하는 사람은 새로 온 공중곡예사다. 여느 채플린 영화에서 보듯 약자들에게 대한 채플린의 태도를 엿볼 수 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노력하는 찰리의 모습은 80여년이 지난 지금에도 가슴 아프게 다가오며 동물들의 연기와 거울 액션 신은 지금 봐도 흥미롭다. 영화 상영과 함께 매직 스트로베리 사운드의 이영훈 밴드의 라이브 연주가 공연된다. 과거의 무성영화와 현대의 음악이 어우러지는 잊지 못할 순간이 될 것이다.

**이영훈** 루시드 폴의 감성과 조규찬의 표현, 이병우의 소리를 가진 한국 포크 발라드 음악사의 계보를 잇는 전통파 포크 싱어송라이터. 2006년 여름 첫 등장하여 솔직한 가사와 섬세하고 멜로디가 강한 핑거스타일의 클래식 기타연주로 공연하며 음악 마니아들에게 이름을 알렸다. 2010년 신인 발굴 프로그램 헬로루키에 선정되었으며 2012년 첫 정규 1집 '내가 부른 그림'을 발매하였다.

"나는 내 인생이 보다 특별하다거나 누구보다 유별나지 않았으면 한다. 그저 동시대를 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나와 당신의 일상을 이야기 하고 싶다. 이번 무주 산골영화제를 통해 기존의 내 곡들을 찰리 채플린의 <서커스>에 나오는 그들의 일상을 보며, 함께 호흡하며 연주해볼 생각이다." (이영훈)



### 말할 수 없는 비밀 Secret

감독\_주절륜 Jay Chou  
대만 | 2007 | 101min | 극영화 | Color | 12세이상관람가

06.06(토) 22:00 | 무주읍 등나무운동장

중화권 최고의 인기가수이자 만능 엔터테이너인 주절륜이 각본, 감독, 주연까지 맡은 감독 데뷔작으로 14살에 겪었던 자신의 첫사랑 경험담을 소재로 만들어낸 작품이다. 디지털 리마스터링 작업을 거쳐 8년 만에 최근 재개봉했다. 예술학교로 전학 온 상윤은 학교를 둘러보다가 옛 음악실에서 사오위를 만난다. 갑작스레 찾아온 첫사랑의 감정에 흔들리는 청춘의 아름다운 몸짓과 꿈을 향해 내딛는 10대들의 모습이 잘 묘사된 청춘 음악영화로 가슴을 울리는 애절한 러브스토리와 두고두고 회자되었던 피아노 배를 장면, 아름다운 영화 음악으로 많은 이들의 기억에 각인되어 있다.

# camping cinema



2014년 덕유산 국립공원의 시설공사로 인해 금강 최상류 금강천 인근의 부남면 체육공원으로 잠시 자리를 옮겼던 숲 속 극장이 올해 다시 덕유산 국립공원 덕유대 야영장 내 대집회장에 마련된다. 스크린 너머 산 능선이 보이는 아름다운 숲 속 극장에서는 금요일과 토요일 양일간 영화 상영과 함께 대한민국의 대표 인디 레이블 매직 스트로베리 사운드 소속 아티스트들의 음악공연이 함께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무주산골영화제만의 프로그램 정체성을 한층 강화하고 조금 더 다양한 방식으로 관객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울림'의 영화를 소개하기 위해 국내의 일반극장에서는 더 이상 경험할 수 없는 35mm 필름 영화를 상영한다. 이와 함께 어린이와 가족 관객을 위한 애니메이션도 상영한다.

올해 '숲' 색션의 상영작을 관통하는 주제는 '사랑과 기억'이다.

먼저 한국은 물론 전 세계 관객으로부터 오랜 시간 사랑 받아온 최고의 멜로 영화 '비포 시리즈'의 시작이 된 <비포 선라이즈>(1995)의 개봉 20주년을 맞이하여 '비포 시리즈' 삼부작을 연속 상영한다. <비포 선라이즈>, <비포 섯>(2004)은 35mm 필름으로, <비포 미드나잇>(2014)은 디지털 방식으로 상영된다. 에단 호크, 줄리 델피와 리처드 링클레이터 감독의 아름다운 우정으로 19년 동안 만들어져, 전 세계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 세 편의 영화는 시간이 흐르면서 늙어가는 것에 대해, 그리고 변화해 가는 사랑에 대해 다시 한 번 속고 하게 하는 아름다운 기회를 선사할 것이다.

그리고 2000년 이후 제작되어 아직도 수많은 관객의 가슴에 깊이 새겨진 두 편의 한국 멜로 영화를 상영한다. 올해로 40주기를 맞이하는 이만희 감독을 기억하기 위해 김태웅 감독, 탕웨이, 현빈 주연의 <만추>(2011)를 35mm 필름으로 상영한다. 그리고 이로부터 10년전 제작되었고, 공교롭게도 <만추>와 마찬가지로 당시 중국 최고의 스타 배우였던 장백지와 한국 최고의 연기파 배우 최민식이 출연했던 송해성 감독의 <파이란>(2001)을 35mm 필름으로 상영한다. 이와 함께 어린이와 가족 관객을 위해 아름답고 평화로운 작은 섬 시코탐을 배경으로 환상적인 이미지에 따뜻한 우정과 사랑, 가족 이야기를 버무려낸 아름다운 2D 애니메이션 <은하철도의 꿈>(2014)이 디지털 방식으로 상영된다.

덕유산 중턱, 해발 700m, 산 속 깊숙한 곳에 마련될 대한민국에 단 하나밖에 없는 아름다운 숲 속 극장에서 '사랑'에 관한 아름다운 6편의 영화가 선물해줄 '사랑과 기억'의 시간은, 꽃기듯 일상을 사는 많은 이들을 위로하는 흔치 않은 기회가 될 것이다.





6/5 금요일 .....



**비포 선라이즈 Before Sunrise** 35mm 필름 상영

감독\_리처드 링클레이터 Richard Linklater  
오스트리아, 미국 | 1995 | 105min | 극영화 | Color | 15세이상관람가

06.05(금) 20:00 | 덕유산 국립공원 덕유대 야영장 丙(내) 대집회장 + 산골토르크(백은하기자)

리처드 링클레이터 감독과 배우 에단 호크, 줄리 델피가 함께 만든 '비포 시리즈'의 첫 작품이다. 비엔나에서 파리로 향하는 유럽횡단 기차 안, 파리로 향하는 셀린느는 말쑥을 하는 독일인 부부를 피해 자리를 옮긴다. 옮긴 자리 옆에는 미국을 가기 위해 비엔나로 향하는 미국인 청년 제시가 있다. 두 사람의 운명 같은 만남과 헤어짐을 다룬 멜로영화다. 제작비 250만 달러의 저예산으로 제작된 작품으로 베를린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수상하며 평단의 호응을 얻기도 하였다. 리처드 링클레이터 감독은 현실성을 강조하기 위해 영화 속 시간과 현실의 시간을 조율하게 만든다. 영화 상영 후 백은하 기자와 영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산골토르크가 마련된다.



**비포 선셋 Before Sunset** 35mm 필름 상영

감독\_리처드 링클레이터 Richard Linklater  
미국 | 2004 | 80min | 극영화 | Color | 15세이상관람가

06.05(금) 22:00 | 덕유산 국립공원 덕유대 야영장 丙(내) 대집회장

'비포 시리즈'의 두 번째 작품인 <비포 선셋>. 비엔나에서 처음 만난 뒤 9년이 지나고, 파리에서 재회한 셀린느와 제시. 베스트셀러 소설가가 된 제시는 출판 홍보 차 찾은 파리의 한 서점에서 셀린느를 만나게 된다. 제시가 저녁 비행기를 타기 전까지 9년 전 그날처럼 다시 함께 파리를 거닐면서 마음 속에는 서로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살아있음을 발견한다. <비포 선라이즈>와 마찬가지로 거의 리얼타임으로 촬영되었다. 여행지에서 느꼈던 두 사람의 들뜨고 설레었던 감정이 <비포 선셋>에서는 셀린느가 거주하고 있는 공간으로 바뀌면서 영화는 더욱 현실감 있게 다가온다.



**비포 미드나잇 Before Midnight**

감독\_리처드 링클레이터 Richard Linklater  
미국 | 2013 | 109min | 극영화 | Color | 청소년관람불가

06.05(금) 23:40 | 덕유산 국립공원 덕유대 야영장 丙(내) 대집회장

<비포 선셋>이후 9년 만에 리처드 링클레이터 감독과 주연 배우 에단 호크와 줄리 델피가 함께 만든 '비포 시리즈'의 마지막 영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그리스의 메시니아 지역을 배경으로 제시와 셀린느는 그리스에 대한 이야기와 자신들의 과거,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제시와 셀린느가 결혼을 하고 함께 지내면서 환상은 사라졌고, 이제는 현실 속에 있는 서로를 마주하게 된다. 18년이란 긴 시간 속에서 많은 것들이 변했지만 여전히 이야기 나누고, 사랑을 한다. 19년 전 <비포 선라이즈>에서 처음 만나 사랑을 시작했던 이 낭만적인 커플이 던졌던 사랑과 결혼의 질문에 대한 답이 이 영화 속에 있다. 영화와 함께 늘어갈 수 있다는 행복감은 이 영화가 주는 또 하나의 선물이다.

6/6 토요일 .....



**은하철도의 꿈 Giovanni's Island**

감독\_니시쿠보 미즈호 Mizuho Nishikubo  
일본 | 2014 | 102min | 애니메이션 | Color | 전체관람가

06.06(토) 19:30 | 덕유산 국립공원 덕유대 야영장 丙(내) 대집회장

별빛이 아름다운 시코탄 섬에 살고 있는 준페이와 칸타 형제는 세계적인 명작 동화 <은하철도의 밤>을 좋아하는 아버지 타츠오의 영향으로 매일같이 기차놀이를 하며 은하철도를 타고 우주를 여행하는 상상 속에 살아간다. 어느 날 낯선 어른들이 섬에 들이닥치면서 섬의 평화는 깨져버리고 만다. 아버지가 섬 밖으로 끌려가면서 행복했던 형제의 삶은 뒤물린다. 요즘 애니메이션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없는 2D 애니메이션으로 서정적인 그림체와 주인공 아이들의 순수한 동심이 인상적인 영화다.



**만추 Late Autumn** 35mm 필름 상영

감독\_김태용 KIM Tae-yong  
미국, 한국 | 2011 | 115min | 극영화 | Color | 15세이상관람가

06.06(토) 21:30 | 덕유산 국립공원 덕유대 야영장 丙(내) 대집회장 ★ 관객과의 대화

1966년 개봉했지만 필름이 유실되어 이제는 볼 수 없는 이만희 감독의 영화 <만추>를 비와 안개의 도시 시애틀을 배경으로 리메이크한 김태용 감독의 2011년 영화다. 살인죄로 복역 중이던 애나가 수감된 지 7년 만에 특별 휴가를 나온다. 시애틀로 향하는 버스에 뛰어 들어온 남자 훈, 애나를 향해 다가온다. 평범하지만 평범하지 못한 두 사람이 마음을 여는 순간을 다룬 이야기. 살아간다는 것,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비추는 저 햇살을 볼 수 있다는 것, 모든 것은 유한하기에 아름답다. 한국의 스타 배우 현빈과 중국의 스타 배우 탕웨이가 출연하여 화제를 모았던 한국 최고의 멜로 영화 중 한 편. 35mm 필름으로 상영된다.

*in memory of 이만희*



**파이란 Failan** 35mm 필름 상영

감독\_송해성 SONG Hae-sung  
한국 | 2001 | 116min | 극영화 | Color | 15세이상관람가

06.06(토) 23:40 | 덕유산 국립공원 덕유대 야영장 丙(내) 대집회장

영화 <파이란>은 배 한 척과 함께 금의환향하고 싶어 하는 삼류건달 강재의 모습으로 시작한다. 연구도 없는 한국에서 자신과 위장결혼 한 백란의 죽음을 알게 된 강재는 백란의 편지로 그녀를 추억한다. 영화는 강재의 현재와 백란의 과거를 오가며 다른 타임에서 서로를 사랑을 하게 되는 두 사람을 그리고 있다. 아사다 지로의 단편 소설 '러브레터'를 바탕으로 변변찮은 삼류 건달과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불법체류 중국 여인의 엇갈린 사랑을 담담이 담아낸 이 영화는 한국 멜로 영화의 걸작 중 한 편으로 평가받는다. 당대 최고의 인기배우 최민식과 중국 최고의 스타배우였던 장병지가 출연하여 화제를 모았다. 35mm 필름으로 상영된다.





# TOWN cinema

'길' 섹션에서는 무주군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영화관'을 운영한다. 작년까지 영화제에 올 수 없는 무주군 내 면단위의 주민과 문화소외 계층을 위해 한국영상자료원 (찾아가는 영화관)과 전북독립영화협회 (웅기총기 마실극장)와의 공동주최로 4개의 면 자치센터에서 '찾아가는 영화관' 과 '웅기총기 마실극장'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무주군민의 영화제 참여를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지역 사회와의 접점을 확대하기 위해 무주반딧불시장과 협업을 통해 시장 내 원형광장에서 '찾아가는 영화관'을 금요일과 토요일 양일간 운영한다.

올해에는 일본영화와 중국영화를 각 1편씩 상영하는데, 먼저 올해 초 개봉하여 입소문을 타고 조용히 많은 관객의 마음을 움직였던 농촌 먹방 요리 영화이자 일본판 삼시세끼라고 할 수 있는 <리틀 포레스트 : 여름과 가을>이 상영된다. 또한 중국의 거장 장예모 감독이 연출하고 중국을 대표하는 배우 공리가 주연을 맡은 감동적인 휴먼 멜로 드라마 <5일의 마중>이 함께 상영된다.

늦은 여름 밤, 산골 무주의 반딧불시장 안에 있는 원형광장에서 시각과 청각, 미각과 후각을 자극하고 관객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길 작은 마을 극장에 여러분을 초대한다.



무주반딧불시장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정터로 2(읍내리 1152)



## 리틀 포레스트: 여름과 가을 Little Forest: Summer & Autumn

감독\_모리 준이치 Junichi Mori

일본 | 2014 | 111min | 극영화 | Color | 12세이상관람가

06.05(금) 20:00 | 반딧불시장 丙(내) 원형광장

많은 독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던 이라가시 다이스케의 만화를 원작으로 한 이른바 농촌 먹방 요리 영화. 도시 생활을 하다 고향 코모리로 돌아온 이치코, 작은 농촌 마을에서 자급자족하며 농촌 생활을 시작한다. 영화는 시간의 변화에 따라 작물과 채소들이 자라는 과정과 이치코가 음식을 만들고, 먹으며 가끔씩 엄마와의 추억을 떠올리는 이치코의 반복적이고 소소한 일상을 세밀하게 묘사한다.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는 주방, 농작물이 자라는 푸른 밭, 작물을 캐야하는 초록빛의 산, 신선하고 맑은 색감의 채소들은 관객의 눈을 시원하게 한다. 가장 놀라운 건 바로 소리다. 음식을 만드는 소리, 음식을 먹는 소리, 늦은 여름 밤 산골 무주의 반딧불시장의 원형광장에서 시각과 청각, 미각과 후각을 자극할 일본판 '삼시세끼'를 만나 볼 수 있다.



## 5일의 마중 Coming Home

감독\_장예모 Yimou Zhang

중국 | 2014 | 109min | 극영화 | Color | 전체관람가

06.06(토) 20:00 | 반딧불시장 丙(내) 원형광장

중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거장 장예모 감독과 그의 오랜 뮤즈인 배우 공리가 <황후화> 이후 7년 만에 다시 만나 내놓은 우아하고 아름다운 멜로 드라마. 중국의 문화대혁명 시기를 배경으로 가슴 아픈 이별을 해야만 했던 평안위와 루엔스. 몇 년 후 강제수용소에 갇혀있던 루엔스는 집으로 돌아오지만 집에는 기억상실증에 걸려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아내 루엔스와 자신에 대한 원망을 갖고 있는 딸이 있을 뿐이다. 이제 평안위에게는 그동안 할 수 없었던 아내와 딸을 다시 사랑할 시간만이 남아있다. 영화는 역사의 소용돌이에 의해 파괴된 가정을 회복시키려는 루엔스의 노력과 평안위의 순애보를 통해 역사가 남긴 아픈 상처를 보듬어낸다.



## 공동주최 & 협력기관

###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영상자료원(원장 이병훈)은 국내 유일의 영화 아카이브 기관이다. 1974년 필름보관소라는 이름으로 출발해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국영상자료원은 우리나라에서 상영된 모든 영화 필름은 물론 시나리오, 포스터, 스틸사진, 문헌을 비롯하여 DVD, 온라인 영상물에 이르기까지 영화에 관련된 자료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수집하고 보존하는 일을 하고 있다.

• 홈페이지 [www.koreafilm.or.kr](http://www.koreafilm.or.kr)

### 서울영상미디어센터

서울영상미디어센터는 독립영화인들과 시민미디어활동을 지원하는 영상과 미디어 창작의 열린 공간으로 영화이론, 독립영화 제작 워크숍, 후반작업기술, 스마트 미디어 강좌 및 찾아가는 미디어 교실을 운영한다.

• 문의 02-2265-2204

• 홈페이지 [www.media-center.or.kr](http://www.media-center.or.kr)

### 한국영상영화치료학회 - 전북지부

한국영상영화치료학회는 영화를 통해 심리치료와 교육에 활용하여 심리상담, 교육, 멘토링, 리더십 교육 등을 하는 기관이다. 2008년 한국영상영화치료학회 창립대회를 시작으로 전문가 양성 연수 및 자격검정과 학술대회 등을 통해 발전을 하여 대중들에게 알려진 기관이다.

• 홈페이지 [www.cinematherapy.co.kr](http://www.cinematherapy.co.kr)

### 배리어프리영화 Barrier-free Fil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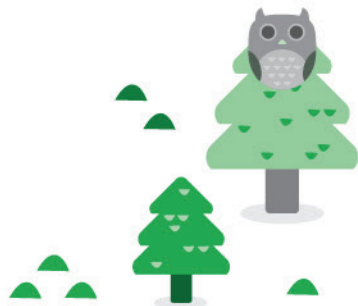
'장벽이 없는', '장애물로부터 자유로운'이란 의미처럼, 시청각장애인들이 불편 없이 영화를 감상할 수 있도록 만든 특별 버전의 영화를 말한다. 일반 관객들이 보는 영화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해설,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어자막 등을 입힌 복합적인 전달방식을 통해 영화 감상의 이해를 돕는다.

### (사)배리어프리영화위원회

전문 영화인들로 구성된 (사)배리어프리영화위원회는 창작자인 감독이 제작에 참여하여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배리어프리버전을 완성하고, 본 영화가 지닌 풍부한 감정 표현과 주제를 장애인 관객들도 그대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마음의 벽을 허물고 가슴으로 보는 배리어프리 영화가 더 많이 제작되고 상영되는 진정한 문화복지사회를 만들기 위해 꾸준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 신청 및 문의 070-8713-8877

• 블로그 [blog.naver.com/kobaff](http://blog.naver.com/kobaff)



**EXCITING ZONE**  
영화와 음악공연으로 관객을 설렘에 빠지게 할 이벤트

설렘존

행사장소 : 무주읍 등나무운동장

**SYMPATHY ZONE**  
영화 콘텐츠로 공감을 이끌어낼 이벤트

울림존

행사장소 : 무주예체문화관

**HARMONY ZONE**  
자연과 영화, 관객이 어우러지는 이벤트

어울림존

행사장소 : 무주 덕유산 국립공원



## 행사공간 소개

### 설렘존 EXCITING ZONE

#### 행사공간 및 부대행사

**행사공간** 무주읍 등나무운동장  
**공간구성** 개막식장, 야외상영, 메인공연, 대중가요 콘서트



무주산골영화제는 무주의 대표 건축물인 등나무운동장에서 자연과 사람, 감성이 어우러지는 야외무대를 설치하여 '설렘존'이라 이름 붙이고, 개막식 및 야외상영과 다채로운 공연 이벤트를 진행한다.

설렘존에서는 고전 무성영화를 보여 라이브 연주를 함께 들을 수 있는 공연과 서울시무용단의 창작무용극이 진행된다. 그리고 국내 최고의 국민가수 '남진'의 산골영화제 축하공연이 펼쳐진다. 남녀노소 모든 관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설렘으로 가득 찬 다양한 공연들과 함께 아름다운 초 여름밤의 추억을 만들어보자.

### 울림존 SYMPATHY ZONE

#### 행사공간 및 부대행사

**행사공간** 무주예체문화관, 무주반딧불시장  
**공간구성** 무주산골영화관 반디관('창'색션), 무주산골영화관 태권관('판'색션), 예체문화관 대공연장('판'색션), 야외무대, 포토존(국·내외 상영작), 전시(한국영화 100선 포스터), 이벤트/체험 부스, 안내/기념품 부스, 관객쉼터



관객의 마음을 울리고, 감동과 만족을 이끌어 낼 무주예체문화관 일대의 '울림존'에서는 '창', '판'색션의 영화들이 3개의 상영관에서 상영되며, 예체문화관 광장에는 상영작 중 국내외 상영작을 활용한 포토존이 설치된다. 예체문화관 광장 야외무대에서는 버스킹 공연이 진행되며 다양한 체험이벤트를 진행한다. '사랑의 손편지 쓰기, 석채화/벚지/가든 만들기 등'의 체험이벤트와 전주 보따리단과 함께하는 프리마켓이 열린다. 관객쉼터에는 산골책방을 운영하여 텐트와 타프, 해먹 등에서 여유롭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도 조성될 예정이다. 또한 올해는 한국영상자료원과 공동주최로 반딧불체육관에서 '한국영화 100선 포스터'가 전시된다.

### 어울림존 HARMONY ZONE

#### 행사공간 및 부대행사

**행사공간** 무주 덕유산 국립공원  
덕유대 야영장 내(내) 대집회장  
**공간구성** 야외상영장 및 음악공연 ('숲'색션 영화 상영)



무주구천동 33경의 한가운데 위치한 덕유산 국립공원 덕유대 야영장 내(내) 대집회장에서는 영화도 보고, 음악도 듣고, 캠핑도 즐길 수 있는 숲 속 야외극장을 마련한다. 가족, 연인 단위의 캠핑족들과 아름다운 자연에서 영화를 즐기기를 원하는 관객을 위해 엄선된 국내외 영화와 애니메이션이 상영된다. 특히 올해는 야외에서 35mm 필름영화 상영이 진행되며 영화 상영 시작 전 매직 스트로베리 사운드 소속 가수들과 함께하는 어쿠스틱 음악공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덕유대 야영장을 방문한 모든 관객이 아름다운 자연과 영화, 공연이 함께 어우러지는 어울림의 공간에서 관객들에게 영원히 기억될 여름밤의 꿈을 선사할 것이다.

## 이벤트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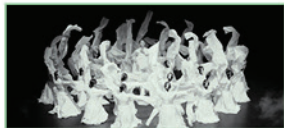
장소	시간	6월 4일(목)	6월 5일(금)	6월 6일(토)	6월 7일(일)
		개막식	설렘데이 EXCITING DAY	울림데이 SYMPATHY DAY	어울림데이 HARMONY DAY
무주읍 등나무운동장 설렘존	19:00	그린카펫	서울시무용단 〈춤로의 여행〉	나눔 콘서트 〈송포유〉	어울림 콘서트 〈남진 리사이틀〉
	19:30	개막식 + 개막작 상영 〈유한계급〉			
	20:00				
	20:30				
22:00	야외상영 〈위플래쉬〉	야외상영 〈말할 수 없는 비밀〉			
덕유산 국립공원 덕유대 야영장 대집회장 어울림존	19:00		숲 속 콘서트 with 매직 스트로베리 사운드 〈요조 & 니들앤젤〉	숲 속 콘서트 with 매직 스트로베리 사운드 〈선우정아〉	
	19:30				
	20:00	야외상영 〈비포 선라이즈〉	야외상영 〈은하철도의 꿈〉		
	21:30				
	22:00	야외상영 〈비포 섀넌〉	야외상영 〈만추〉		
	23:40	야외상영 〈비포 미드나잇〉	야외상영 〈파이란〉		
무주예체문화관 울림존	13:00		통내친구들		셋두리
	15:30		빅다빈		유니온럽
	이벤트 & 체험 11:00~18:00	관객 참여 이벤트 상시 진행 & 체험 부스 ※ 체험 참여시 준비된 수량이 소진되었을 경우 운영이 중단됩니다.			
포토존 (상시운영)	포토존				
전시 11:00~19:00	한국영화 100선 포스터 전시 (공동주최 : 한국영상자료원)				
설천면 다목적광장	스페셜 이벤트 17:00~19:00	전주MBC 라디오 공개방송 초미남 정진권! 초태남 이충훈! 〈두시만세〉 6월 6일(토) 17:00 ~ 19:00 (표준FM 94.3MHz)			

※ 영화상영 세팅, 공연 리허설 소요시간 등 현장 사정에 따라 시작 시간에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점 양해 바랍니다.



## 공연 소개

### 설렘존



#### 서울시무용단 '춤으로의 여행'

시민이 아끼는 무용단, 서울시무용단은 한국무용계를 선도하며 한국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알리고 있는 팀이다. 아름다운 등나무운동장에서 펼쳐질 서울시무용단의 무용공연을 통해 춤으로의 여행을 떠나보자!

06.05(금) 19:00 [설렘존] 무주읍 등나무운동장 메인무대



#### 나눔 콘서트 <송포유>

전주MBC 공개 녹화방송으로 진행되는 <송포유>는 정통 라이브 음악프로그램으로 무대 가까이에서 관객들과 소통하며 일상에 지친 이들에게 힘을 주는 나눔 콘서트이다. 여름밤 아름다운 자연에서 눈과 귀, 마음까지 힐링 시킬 수 있는 무대가 펼쳐진다.

06.06(토) 19:00 [설렘존] 무주읍 등나무운동장 메인무대



#### 야외상영 <서커스> + LIVE 연주 with 이영훈 밴드

고전 무성영화를 보는 동시에 라이브 연주를 들을 수 있는 색다른 공연이 펼쳐진다! 찰리 채플린의 영화 <서커스>와 섬세하고 멜로디한 핑거스타일의 클래식 기타연주로 알려진 이영훈과 그의 밴드들이 만나 새롭게 태어난다. 싱어송라이터 이영훈과 그의 밴드의 연주와 함께 찰리 채플린의 소박한 일상을 함께 호흡해보자.

06.06(토) 20:30 [설렘존] 무주읍 등나무운동장 메인무대



#### 어울림 콘서트 <남진 리사이틀>

가요계의 살아있는 전설 남진의 제3회 무주산골영화제 축하 리사이틀 공연!

06.07(일) 19:30 [설렘존] 무주읍 등나무운동장 메인무대

### 울림존



#### 동네친구들 Dongne Friends

동네친구들은 가수 같지 않은 평범한 외모와 함께 언제 어디서 만나도 반가운 동네친구처럼 친근한 음악을 선보이겠다는 포부의 실력파 신인그룹으로 잔잔한 발라드 곡과 추억의 7080노래를 어쿠스틱 기타와 피아노에 맞춰 그들만의 감성무대를 선사할 것이다.

06.05(금) 13:00 [울림존] 무주 예체문화관 광장 버스킹 무대



#### 박다빈 Dabin Park

오디션프로그램 슈퍼스타K4에서 <할렐루야>를 열창하며 개성있는 목소리로 주목을 받았던 화제의 참가자 박다빈! 2년여의 공백을 깨고 올해 디지털 싱글 <baby boy>를 발표하며 가수가 되어 대중들에게 인사하였다. 기타선율과 함께 그녀만의 특유의 보이스가 돋보이는 매력적인 무대를 만나볼 수 있다.

06.05(금) 15:30 [울림존] 무주 예체문화관 광장 버스킹 무대



#### 셋두리 Firefly322

"우리끼리 오순도순"의 의미를 가진, 무주의 대표 천연기념물 322호 반딧불이의 이니셜로 만든 셋두리 팀은 무주군청 직원들로 구성된 직장인 락밴드이다. 14년 동안 다져진 끈끈한 팀워크와 음악에 대한 열정이 가득한 그들의 무대를 만나보자!

06.07(일) 13:00 [울림존] 무주 예체문화관 광장 버스킹 무대



#### 유니온펍 Union Pub

여러 사람이 어울려 호프(HOF) 한잔을 부딪히며 호프(Hope)를 나누는 펍의 분위기를 음악을 통해 그리고 싶다는 목표를 가진 유니온펍은 대중적인 멜로디 위에 조금은 개인적이면서도 어찌 보면 보편적인 감성을 순수하게 옮긴 노랫말이 돋보이는 3인조 기타 팝 밴드팀이다.

06.07(일) 15:30 [울림존] 무주 예체문화관 광장 버스킹 무대

### 어울림존



#### 요조/니들앤젬 Yozoh/Needle&Gem

한국을 대표하는 여성 싱어송라이터 요조와 니들앤젬의 기타와 보컬을 맡고 있는 싱어송라이터 에릭 유가 만나 콜라보레이션 무대를 선보인다. 페스티벌과 공연 그리고 방송, 영화, 라디오 DJ, 도서, 사진 등 전방위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는 요조와 서정적 분위기와 독특한 감성의 자작곡들로 주목 받고 있는 에릭의 환상적인 공연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06.05(금) 19:00 [어울림존] 덕유산 국립공원 덕유대 야영장 내 대집회장



#### 선우정아 Sunwoo Jung-A

선우정아는 싱어송라이터, 재즈보컬, 작곡가, 프로듀서, 그리고 팝, 재즈, 락 등 온갖 경계를 넘나드는 실력파 뮤지션이다. 강렬함과 청아함이 묘하게 섞인 음색으로 어떠한 장르든 가리지 않고 선우정아 스타일로 만들어버리는 음악의 연금술사 그녀의 몽환적인 무대로 초대한다.

06.06(토) 19:00 [어울림존] 덕유산 국립공원 덕유대 야영장 내 대집회장

### 스페셜이벤트



#### 전주MBC 라디오 공개방송! <두시만세>

초미남 정진권! 초쾌남 이충훈!이 무주로 찾아온다.

진행 정진권, 이충훈  
주파수 표준FM 94.3MHz

06.06(토) 17:00 ~ 19:00 [어울림존] 무주 설천면 다목적광장



## 관객 참여 이벤트

### 무주 산골캠핑

별빛이 쏟아지는 숲속 야외극장!! 영화와 음악 그리고 캠핑!

자연과 영화, 공연이 함께 어우러지는 어울림의 공간에서 관객들에게 영원히 기억될 여름밤의 꿈을 선사합니다.

#### 장소 안내

- 덕유산 국립공원 덕유대 야영장 :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삼공리 519-7번지
- 야영장 종류 : 일반 야영지, 자동차 야영장, 카라반, 산막텐트, 폴딩텐트
- 야영장 시설 : 공동 샤워장, 화장실, 공동 취사장, 매점

#### 예약 안내

##### 1) 덕유산 국립공원 일반야영지 및 자동차야영장 예약

예약 시작 일자 2015년 5월 15일 (금)  
 예약 방법 덕유산 국립공원 홈페이지 접속 (<http://reservation.knps.or.kr>)  
 → 회원가입 또는 비회원으로 예약진행 → 기간 및 야영장 선택 → 결제진행  
 1일 사용시간 당일 14:00 ~ 익일 13:00  
 문의 덕유산 국립공원 덕유대 야영장 063)322-3174

##### 2) 덕유산 국립공원 내(내) 카라반 및 산막 / 폴딩텐트 예약

예약 시작 일자 2015년 5월 4일 (월)  
 예약 방법 덕유대 야영장 홈페이지 접속 (<http://www.gogocamp.net>)  
 → 숙박예약 진행  
 1일 사용시간 당일 14:00 ~ 익일 11:00  
 문의 ㈜단풍산업종합개발 063)323-3733



#### <캠핑장 이용 주의사항>

- 1) 덕유산 국립공원 야영장과 카라반, 텐트 등 야영장 예약 시 별도의 이용금액이 부과됩니다.
- 2) 야영장 비예약자의 경우 캠핑이 불가하오니 캠핑을 원하시는 분은 반드시 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야영장 사이트가 남아있는 경우는 현장에서 예약 가능)
- 3) 야영장 내 세면용품은 비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개인 물품을 지참하여 오시기 바랍니다.
- 4) 캠핑을 하지 않는 일반 관객은 셔틀버스와 자가 차량을 이용하여 덕유산 국립공원 덕유대 야영장 내(내) 대집회장으로 오시면 됩니다. (자가 차량 이용 시 대집회장 주차장 이용)

※ 캠핑을 하지 않더라도 무료로 숲속 야외극장 프로그램 관람이 가능합니다.



### 반딧불 야시장 : 별보고 장보고



무주반딧불시장에서 문화와 전통시장이 결합된 색다른 야시장이 펼쳐진다. 무주시장 상인들이 참여하는 푸드 장터부터 아트 페어, 벼룩시장, 다문화 장터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지는 오감 만족형 야시장이 될 것이다.

일시 2015년 6월 5일 (금) ~ 6월 6일 (토), 18:00 ~ 23:00  
 장소 무주반딧불시장  
 주최 무주시장 상인회, 무주반딧불시장 문화관광형 육성사업단, 야시장운영위원회



## 관객 참여 이벤트

행사장 구석구석에 마련된 즐거운 이벤트를 찾아보세요!

포토존, 영화 속 명장면을 만나!  
 <고녀석 만나겠다!> 함께라서 행복해>, <패딩턴>, <찰리 채플린>



무주 예체문화관 앞 광장에서 런던일대를 누비고 다니는 귀여운 패딩턴과 초원의 평화를 지키는 꼬마 티라노 사우르스 '미르'와 친구들을 만나볼 수 있다. 그리고 찰리 채플린의 캐릭터 '리틀 트램프'의 탄생 101주년을 기념으로 일러스트레이터 10인과 함께한 아트 포스터 전시도 함께 진행되어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 산골 보물을 찾아라

캠핑관객들을 위한 깜짝이벤트! 캠핑장 곳곳에 숨겨놓은 보물(쪽지)을 찾아라! 보물을 찾으면 선물이 팡팡 쏟아진다!

#### <한국영화 100선> 포스터 전시



반딧불체육관에서 진행되는 <한국영화 100선> 전시는 한국영화 대표작을 소개하고 한국영화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선정된 한국영화 100선의 포스터를 전시한다. 전시를 통해 한국영화 100여 년 역사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공동주최 : 한국영상자료원

#### 산들산들마켓



전주 보따리단과 함께하는 프리마켓. <산들산들마켓!> 아끼자기한 소품부터 취향저격 디자인제품, 손수 만든 먹거리까지! 산들바람이 불어오는 산골, 무주에서 열리는 프리마켓으로 가보자!

#### 산골책방

산골에서 책도 읽고 한숨 쉬어가는 곳, 산골책방. 예체문화관 앞 광장에 설치된 텐트와 타프, 해먹 등에서 여유로움을 만끽해 볼 수 있다.

## 관객 체험 프로그램

관객들이 직접 제작하고 체험하는 산골가족 추억 만들기!

※ 상기 체험 프로그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객 체험 프로그램 일부는 유료로 진행됩니다.



#### 사랑의 손편지 쓰기 (무료체험)

아날로그로 돌아가 손편지의 따뜻함을 느껴보는 시간! 소중한 사람들에게 손편지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해보자.



#### 천연염색 체험

찾아가는 천연염색 교실.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염색 체험을 통해 자연의 신비함과 아름다움을 느껴보자.



#### 석채화 체험

석채화가 김기철 화백과 함께하는 석채화 체험시간. 다양한 색채의 물감으로 표현되는 신비로운 작품 속으로 빠져들자.



#### 스탬프로 에코백 만들기

다양한 스탬프를 이용한 에코백 만들기 체험! 선착순으로 1일 100개 무료체험이 진행되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말자!



#### 나만의 정원 만들기

다육식물과 공병, 피규어 등으로 나만의 테라리움, 병속의 화원을 만들어 보는 시간.



#### 캐릭터 캐리커처 뱃지 만들기

작가들이 그려주는 캐리커처와 캐릭터들로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의 악뱃지, 뱃지를 만들어보자.



#### 자전거 발전기로 휴대폰 충전하기 (무료체험)

하나둘! 하나둘! 신기한 자전거 발전기 돌리기 체험! 내 휴대폰을 직접 충전하며 에너지의 소중함을 되돌아보자.





# 만든사람들

## 산골친구

강태환 김경민 김다정 김대명 김수빈 김재원 박병수 박용현 박현우 배혜진 성유리 손가인 신종운 심희은 유여진 윤희진 이신희 이윤정 이화진 조세영 최영서 홍석인 홍수경 황기탁

## 조직위원회

조직위원장  
황정수

조직위원  
박희영  
이대석  
이태동  
한용성

## 집행위원회

집행위원장  
유기하

부집행위원장  
조지훈

집행위원  
곽지현  
권용주  
김병연  
박종관

자문위원회  
김 건  
김동원  
정상진  
민병록  
표종록

## 스태프

프로그램머  
조지훈

사무국장  
신동환

기획운영팀  
김경진 김형준 박용현 이지연

프로그램홍보팀  
김구슬 이영인 이진선

개/폐막 코디네이터  
이정우

초청 코디네이터  
이슬비

기술팀  
이보람  
임명근

# 도움주신 분들

강나경 (CJ E&M)  
강동훈 (한국수목재협회)  
강범희 (일모, 웰강치과)  
강상욱 (미디어캐슬)  
강중근 (재한국제음악영화제)  
강지나 (블룸즈베리리소시스)  
강지은 (영화사 찬란)  
강종희 (미어필)  
고영주 (전북비평포럼)  
고해경 (보따리단)  
곽지현 (커뮤니케이션즈 온)  
구화정 (디자인스튜디오 page9)  
권미희 (프로투사)  
권순환 (그린나래미디어)  
권진철 (서울시무용단)  
김 건 (전북대학교)  
김 용 (태권도진흥재단)  
김경연 (제이아이스토리 엔터테인먼트)  
김고운 (커뮤니케이션즈 온)  
김광희 (국제무형유산영상페스티벌)  
김규영 (나이나스엔터테인먼트)  
김규석 (태권도진흥재단)  
김기철 (석재화기)  
김기숙 (영화사 진진)  
김도영 (진우건설)  
김동필 (무주군청 기획조정실)  
김동현 (서울특별영화제)  
김두린 (두린캔들)  
김두태 (아카데미광고기획)  
김미영 (한국미아이스터)  
김범용 (태권도진흥재단)  
김삼중 (무주반딧불축제전위원회)  
김선태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김선태 (작은영화관사회적협동조합)  
김성호 (영화감독)  
김소영 (레드메이스)  
김수경 (베리어프리영화위원회)  
김수현 (나무엑터스)  
김승환 (LGBT영화제)  
김시내 (오드)  
김강명 (MJ)  
김연지 (다우기술)  
김영목 (일모, 웰강치과)  
김영현 (전주영상위원회)  
김예원 (드림웨스트 픽처스)  
김은영 (베리어프리영화위원회)

김아석 (동외대학교)  
김재용 (영화사 진진)  
김정현 (아카데미광고기획)  
김지선 (피터팬픽처스)  
김지은 (엔케이컨텐츠)  
김지희 (디자인스튜디오 page9)  
김진경 (문화나들이)  
김진순 (하이브로우)  
김차동 (전주MBC프로덕션)  
김태용 (영화감독)  
김한나 (판다미디어)  
김현수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  
김현태 (전북대학교)  
김형래 (일양로지스)  
김형주 (CNC월드)  
김혜나 (영화배우)  
김혜성 (영화감독)  
김영호 (판다미디어)  
노상은 (무주군청 군수실)  
노창우 (한국영상자료원)  
류지은 (누리픽처스)  
맹수진 (EBS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모그림 (모그림)  
모은영 (한국영상자료원)  
문미리 (에이든컴퍼니)  
문병용 (전주영화제작소)  
문성경 (인천다큐멘터리포드)  
문현중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박 찬 (순천시영상미디어센터)  
박경민 (MJ)  
박광철 (무주반딧불시장)  
박기석 (허밍로즈)  
박기용 (영화감독)  
박길준 (무주군청 문화관광과)  
박미영 (씨네룩스)  
박민수 (국회의원)  
박민우 (H힐스리조트)  
박병수 (CJ E&M)  
박병규 (그린나래미디어)  
박병근 (유니버설픽처스인터네셔널코리아)  
박상아 (CJ E&M)  
박선미 (전주국제영화제)  
박세은 (필리먼트픽처스)  
박세철 (대명레저산업)  
박언주 (헤리슨컴퍼니)

박연숙 (허밍로즈)  
박연실 (국제무형유산영상페스티벌)  
박민철 (작은영화관사회적협동조합)  
박인혜 (나무엑터스)  
박재영 (문화나들이)  
박종현 (단풍종합개발)  
박진우 (아트영상)  
박혜영 (드림웨스트픽처스)  
박혜진 (옛나인 필름)  
박홍기 (한국영화아카데미배급팀)  
박희영 (무주군청 문화관광과)  
배상원 (MBC플러스미디어)  
백선미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백정민 (한국영상위원회)  
백학기 (영화감독)  
변영주 (영화감독)  
서민희 (순천만세계동물영화제)  
서숙경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서윤희 (KTC&G상상마당)  
성기석 (국제무형유산영상페스티벌)  
성현수 (나무엑터스)  
소민수 (호산니움랩)  
송길하 (시나리오작가)  
송유진 (타게스트)  
송재욱 (무주군청 문화관광과)  
송해성 (영화감독)  
심재영 (영화감독)  
안성문 (메직스트로베리사운드)  
안지영 (푸르밀)  
안경민 (한국영상위원회)  
안병준 (허니펀치프로젝트)  
안정화  
안형숙 (무주반딧불시장)  
오미란 (무주반딧불시장)  
오소취 (올댓시네마)  
오정완 (영화사 불)  
오정훈 (인디다큐페스티벌)  
오지현 (판다미디어)  
우전민  
원성진 (시네마누원)  
원인영 (블룸즈베리리소시스)  
장성란 (메가진M)  
유재원 (레드메이스)  
유진희 (CJ E&M)  
유창국 (무주군청 시설관리소)  
유현주 (부산국제단편영화제)

윤수비 (조이엔컨텐츠그룹)  
윤재호 (영화감독)  
윤정내 (미디어캐슬)  
윤정실 (한국미아이스터)  
윤혜진 (재자연유)  
이 란 (보따리단)  
이경신 (사누필름)  
이경원 (참마니)  
이경진 (누리픽처스)  
이근욱 (키노빈스)  
이기영 (부산국제영화제)  
이미정 (팝엔터테인먼트)  
이만하 (한국미아이스터)  
이병국 (새만금개발청)  
이상우 (영화감독)  
이석영 (진우건설)  
이선영 (전주영화제작소)  
이세희 (하이브로우)  
이승수 (한국영상위원회)  
이예스더 (피치블랙)  
이영기 (부산국제영화제)  
이영호 (전북특별영화협회)  
이용철 (영화평론가)  
이은정 (베리어프리영화위원회)  
이재갑 (휴시네마)  
이정구 (전주MBC)  
이정진 (부산국제단편영화제)  
이종문 (푸르모디티)  
이종성 (진우건설)  
이주는 (커뮤니케이션즈 온)  
이지혜 (영화사 찬란)  
임경택 (무주군청 농업소득과)  
임홍식 (전주MBC)  
임동식 (하이테크로)  
임상준 (디자인I-1)  
임소정 (엔케이컨텐츠)  
임재문 (피치블랙)  
임철현  
임학수 (전주영화제작소)  
임홍진 (전주MBC)  
장규호 (푸르모디티)  
장성란 (메가진M)  
장필재 (그레미)  
장화철 (영화감독)  
전승우 (옛나인 필름)  
정기봉 (H힐스리조트)

정낙성 (전북비평포럼)  
정동호 (옛나인 필름)  
정문성 (이산)  
정상진 (옛나인 필름)  
정상철 (석정수)  
정상현 (Led Zeppelin)  
정선규 (기림기획)  
정선민 (신필름)  
정용재 (CJ E&M)  
정진욱 (전주영상위원회)  
정태원 (영화사 진진)  
정태후 (전주MBC)  
정현승 (전주MBC프로덕션)  
정해민 (한국영상위원회)  
조문수 (휴림)  
조미숙 (누리픽처스)  
조 석 (한국수력원자력)  
조시돈 (전북비평포럼)  
조영각 (서울특별영화제)  
조영배  
조은경 (영화사조제)  
조은비 (메직스트로베리사운드)  
조현아 (에이블엔터테인먼트)  
주 희 (옛나인 필름)  
주상철 (씨네21)  
주한중 (서울특별영화제)  
천세진 (무주군청 문화관광과)  
최낙용 (아트하우스 모모)  
최대원 (휴림)  
최동우 (아카데미광고기획)  
최문희 (포토그래피)  
최상배 (거인이벤트)  
최영관 (무주군청 기획조정실)  
최영애 (미디어로그)  
최유리 (옛나인)  
최유선 (조이엔컨텐츠그룹)  
최지유 (미디어캐슬)  
표종록 (JYP엔터테인먼트)  
한규황 (고려황실)  
한민형 (롯데엔터테인먼트)  
허문영 (영화평론가)  
현형태 (네버랜드)  
홍달남 (메직스트로베리사운드)  
홍영주 (부산국제단편영화제)  
홍한일 (무주군청)  
황윤정 (하원필름)





무주산골영화제  
홈페이지



무주산골영화제  
블로그



무주산골영화제  
페이스북

무주산골영화제 홈페이지 <http://www.mjff.or.kr>

무주산골영화제 블로그 <http://blog.naver.com/pronovis>

무주산골영화제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mujufilmfestival>

무주산골영화제 트위터 @mjff2013

무주산골영화제 인스타그램 @mujufilmfest

무주산골영화제 유튜브 <http://www.youtube.com/mujufilmfestival>

발행일 2015년 5월 7일

발행인 유기하

책임편집 조지훈

편집 김구술

글쓴이 조지훈, 김구술

교정 조지훈, 신동환, 이정우, 김구술, 김경진, 김형준, 이영인, 이지연, 이진선, 이슬비

디자인 구화정 page9

인쇄 아이엠피 IMP

무주산골영화제 사무국

전주시 완산구 선너머 1길 50 2F

전화번호 063.220.8253

팩스 063.220.8254

[www.mjff.or.kr](http://www.mjff.or.kr)



# Communications ON

언제나 ON 되어 있는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집단

메시지를 디자인하는 PR전문회사  
PR전문가들의 즐거운 놀이터

(주)커뮤니케이션즈 온 종합 홍보/광고 대행, 행사 및 이벤트 대행, 홍보제작물  
Tel | 02-6925-5419 Fax | 02-707-0419 Web | [www.comm-on.co.kr](http://www.comm-on.co.kr)



전북대학교가  
“신한류 창의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프랑스학과 사학과 문헌정보학과 소프트웨어공학과 통계학과 건축공학과 산업디자인과 한국음악학과



# (주)문화나들이

지역별·테마별 문화체험여행 / 전통·생태탐방 문화체험학습 /  
지역축제 공식기념품 / 영화제 관객체험 / 문화소외계층 지원사업



(주)문화나들이  
561-833 전주시 덕진구 건훤왕궁로 254(인후동2가)  
office 063.255.5581 fax 0303.3130.5586

무주산골영화제의 든든한 파트너

문화나들이 검색

www.jbco.or.kr



www.hhillsresort.co.kr

# 무주에는 구천동 33경의 비경과 함께 H힐스리조트가 있습니다

사계절 색다른 구천동 33경의  
아름다움을 담고 있는 H힐스리조트는  
아늑한 단독형 객실 및 연회시설,  
다양한 크기의 세미나실 및 대운동장 완비로  
무주 여행객을 위한 숙박은 물론,  
돌잔치, 회갑연 등의 가족행사나  
대학생 MT, 직장 연수 등의 단체행사에도  
부족함이 없는 복합형 리조트입니다.

지금 무주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H힐스리조트를 기억해 주십시오.

자연을 닮은, 자연을 담은 리조트

## Hhillsresort

예약문의 1600-0692(代)

전라북도 무주군 무풍면 삼거리 135-15



그림닷컴



## 새로운 공간을 만드는 가장 심플하고 쉬운 방법

www.gurim.com

45년 전통 (주)비앤즈(구 바른손카드)가 운영하는 그림 전문 온라인샵 그림닷컴





# THE GREAT CHANGE



홈페이지 : [www.tkdwon.kr](http://www.tkdwon.kr)  
대표전화 : 063-320-0114



- 위치 :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면적 : 231만4천 m<sup>2</sup> (572ac)
- 사업기간 : 2005년 ~ 2013년
- 개관 : 2014년 4월

국립태권도원은 가까이 있어요.

## ● 오시는 길

### ◎ 대중교통



### ◎ 승용차

내비게이션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소천리 산 119-1)

• 서울/수도권, 대전, 전주, 광주, 대구, 부산 등 전국 주요도시 어디서나 2시간 30분 이내에 방문 가능합니다

## ● 입장료

	입장료(원)			별도요금(원)	
	성인	청소년	소인	체험관 Yopl	모노레일
일반	4,000	3,500	3,000	청소년 2,000	소인 1,000
할인	3,000	2,500	2,000		

무로 : 만5세 이상 아동, 경로면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장애인(1~4급)  
할인 : 20인 이상 단체, 유주군민, 군민, 위문 태권도 용·단체, 소자자 및 도복 착용자  
• 태권도인 단체일 경우 소인 단체 할인가 적용



## ● 운영시간

하절기(3~10월)	
화 ~ 금 10:00 ~ 18:00	주말·공휴일 10:00 ~ 19:00
동절기(11~2월)	
화 ~ 금 10:00 ~ 17:00	주말·공휴일 10:00 ~ 18:00

• 경기 휴관 : 매주 월요일 (단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1월 1일, 설·추석 당일 및 당일



# OMOO JEANS



最上品  
황칠本家

# 고려황칠 1000

내 몸을 살리는 건강 비법  
100% 황칠나무추출액



NAVER 고려황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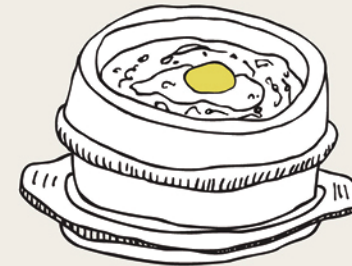
☎ 1644-0187

## 이런분께 권해드립니다

- 피가 탁하거나 피의 흐름이 좋지 않은 분
- 허약체질로 체질개선을 원하시는 분
- 음주로 인한 숙취로 아침에 힘든 분
- 관절과 근육이 저리거나 손발이 차가운 분
- 늘 피곤하다고 느끼시는 분
- 속이 불편하거나 배변이 힘든 분
- 이유 없이 우울하고 생활에 활력이 없는 분
- 잇몸이 허약하고, 입냄새가 많이 나는 분

삼백그릇의 정성  
삼백집

날계란 하나 · 삼백그릇의 정성  
당신의 맛있는 생활속으로 들어갑니다



날계란 한 알이 들어간...

illustr by ogisa

휴림(주) www.300zip.com

본사대표전화 1666-1947 | 서울경기지역본부 02-3431-9423 | 충청지역본부 070-8600-3100



OUTDOOR  
CLASSIC



**적벽,**  
우리는 그순간을  
**레드페이스라 부른다.**  
가장 뜨거운 지금

레드페이스 전속모델 정우성

A handwritten signature in black ink, likely belonging to the model mentioned in the text above.